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 안보에 미칠 影響

1994. 10.

申 相 振 (國際研究室 研究委員)

全 東 震 (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序 文

1990년대 동북아 安保秩序는 여전히 미, 일, 중, 러 등 한반도 周邊 4強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그러나 周邊 4強간의 軍事 力學關係는 과거와 현격하게 다른 일면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 역내 安保秩序 유지에 있어서 미국과 러시아의 影響力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반면, 지역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影響力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과 일본이 經濟力을 기반으로 하여 軍事力을 증강하고 있는 사실은 東아시아에 심대한 安保威脅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과거 韓半島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周邊國이라는 점에서 중·일의 군사력 증강은 한반도 安保環境에 심각한 위협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에서는 중·일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에 주는 意味를 분석·평가하고, 韓國政府의 對應策을 제시하기 위해 本 研究를 추진하였다. 아무쪼록 本 研究가 정부의 安保政策 및 統一政策 입안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4. 10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要 約

중국과 일본의 軍事力 增強은 동북아 및 韓半島 정세에 증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本 研究는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향후 동북아질서 변화와 韓半島의 安保 및 統一過程에 미칠 영향을 분석·전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對應方案을 제시하였다.

1. 中國의 軍事力 增強 展望

1990년대에 들어 중국은 武器의 質과 軍 組織의 精銳化가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인식, 軍事·武器 裝備 現代화와 軍 組織 改編 등을 통해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여 왔다. 현재 중국의 군사력은 기술적·재정적·정치적 요인 등으로 말미암아 미국과 러시아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 상황이나, 동아시아 周邊國에게는 커다란 잠재적 威脅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은 經濟力이 축적됨에 따라 國防豫算을 증액함으로써 군사력 증강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력 신장은 자연히 國防豫算 증액을 가능하게 하여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방대한 영토와 인구 등 超強大國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제약이 없을 경우 軍事 強國을 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鄧小平 사후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군부의 지지 확보를 위해 중국 지도부

가 군사력 증강을 적극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이 단기간내에 尖端武器를 갖춘 군사 강대국으로 도약하기에는 많은 制約要因이 있다. 첫째, 충분한 국방예산의 책정이 군사력 현대화의 필수조건이나, 중국이 군사비를 대폭 증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기술적 한계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 대다수 중국 국민들이 軍事力 증강 보다 經濟發展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과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위협을 고려하여 중국에 대한 攻擊武器·技術 제공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점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日本의 軍事力 增強 展望

일본은 「제2차 新中期防衛力整備計劃」(1991~1995)하에 매년 약 350억 달러를 軍事費로 투입하여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일본은 이 계획을 통해 주변해역의 防衛能力과 海上交通路의 보호를 위한 신예호위함과 잠수함 건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核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석유의존도를 낮춘다는 명목으로 2010년까지 85톤의 플루토늄을 생산, 이용하는 핵에너지 이용계획을 추진중이며, 이에 따라 일본은 자신의 尖端科學技術 및 經濟力을 결합시켜 핵무기 개발

직전단계까지의 모든 분야의 핵기술을 개발함으로써 核潛在力을 계속 축적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북한의 「노동1호」 미사일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지상·해상·공중에서 立體的인 防禦作戰을 수행하기 위해 「전역미사일방어」(TMD) 체제를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통해 新武器開發을 위한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자적인 방위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制約要因들이 있다. 첫째, 일본의 독자적인 전쟁 수행능력 및 훈련·준비태세는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취약하다. 둘째, 일본이 완전한 규모의 군사능력을 갖추려면 GNP의 7~10%의 防衛費 지출을 10~15년간 지속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현재 일본은 약 1%의 방위비 지출을 하고 있고, 일본내에는 군사비 증액을 반대하는 輿論이 팽배해 있어서 급격한 군사비 증액이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일본은 자국의 방위와 주변국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美·日同盟關係가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바, 미·일동맹관계는 지속적으로 일본의 과도한 군사력 증강을 억제할 것이다.

결국 일본은 당분간 독자적인 핵무장이나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해상수송로 獨自防衛를 추진하기 보다는 미국의 핵우산하에서 미국과의 협조하에 점진적인 군사력 증강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본은 군사력 증강을 계기로

미·일간 세계적 同伴者關係 구축을 위한 협력 명분하에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 대한 안보역할을 점진적으로 증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3.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에 미칠 影響

1990년대 동북아는 地域國들의 급속한 경제성장, 강대국간 영향력 확대 경쟁 그리고 중국과 한반도의 장래문제 등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지역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동북아 군사·안보문제에 대해 과거 보다는 다소 비중이 약화된 調整者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의 대내 정치·경제문제로 인하여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증강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감소에 따른 역내 勢力空白을 메우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0년대 중국과 일본이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수준으로 군사력을 증강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고, 역내 군사·안보 질서 調整者로서 미국의 역할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와 같은 동북아 4강간 역학관계 변화는 4강간의 군사·안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美·日間 軍事同盟關係는 기본 골격면에서 효력이 지속될 것이나, 구소련의 붕괴 등 세계 전략환경의 변화와 양국의 대내외정책 변화로 말미암아

점차 결속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문제 등 지역안보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안보협력 재개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중국이 경제력 신장을 통해 동북아 지역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바, 미국은 지역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중국도 당면목표를 경제발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緊張關係를 해소해야만 하며,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미국과의 군사협력관계 모색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중간 군사·안보 협력관계 진전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이에 따른 대외 팽창정책 추진 가능성,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무기 제공 등으로 인하여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일본은 냉전이후 상대방을 잠재위협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양국간 군사·안보관계에서는 협력적 측면과 경쟁적 측면이 병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일은 역내에서 상대방의 정치·군사적 역할 확대정책을 견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양국간 안보관계 발전에는 限界가 노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介入政策이 축소되고 역내에서 안보대화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중·일간 안보관계는 경쟁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중·일로 하여금 대외 軍事行

動 선택을 자극하는 등 대외 強硬政策을 추구하도록 할 것인 바, 이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중·일의 군사력 증강은 한반도의 남북한에게 독자적 안보역량 강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남북한간 군비통제 등 신뢰구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도 남북한은 전체예산의 상당부분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어서 경제발전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바, 중·일의 군사력 증강은 남북한간 군비경쟁을 심화시켜 北韓經濟의 회생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韓國經濟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臺灣問題를 무력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중국의 욕망을 증대시킬 것이며, 미국이 대만에서 가지고 있는 이익을 감안할 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에 미국의 군사력을 존속시킬 필요성을 갖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당분간 美·日 同盟體制 내에 국한되어 추진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바, 미국은 일본의 독자적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고 역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을 비롯한 역내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다. 중·일의 군사력 증강은 결국 동아시아 지역불안을 야기하는 등 미국의 기존 이익을 침해하게 될 것이므로 미국은 한국 등 역내에 주둔하고 있는 美軍이 계속 殘留되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셋째, 중·일의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 및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파괴하는 등 지역안정 유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역내국가들은 기존의 쌍무적 安保同盟만으로는 중·일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고 중·일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중·일의 군사력 증강은 한반도에 대한 중·일의 영향력 확대 경쟁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중·일이 북한에서는 중국의 우월권을 한국에서는 일본의 우월권을 상호 인정하는 형태로 韓半島의 分斷을 固着化 시킬 가능성이 있다.

4. 韓國의 考慮事項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한반도 安保環境에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인 바, 韓國政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정부는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안보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방위를 위한 최소한도의 軍事力을 계속 維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경제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군사력 증강은 장기적으로 한민족의 繁榮에 결코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이 중·일의 군사력에 대처할 수 있는 獨自的 軍事能力을 확보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중·일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완화하고, 중·일의 군사력 증강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地域紛爭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 중, 일 등 주변국들을 참여시키는 동북아 多者安保協力體 창설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정부는 중국의 핵위협과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 한반도 非核地帶化 구상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核彈頭는 한국을 겨냥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움직임은 일본의 핵무기 개발을 자극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넷째, 한국정부는 美國과의 同盟關係를 확고하게 유지하되, 中·日과도 安保協力 관계를 점차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중·북한간 군사동맹조약중 한국을 겨냥한 부분의 개정을 중국측에 요구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한·중 상호간 不可侵 등 안보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基本關係條約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정부는 中國과의 經濟的 상호 依存度를 심화시킴으로써 중국의 안보위협을 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 중국 軍部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한·중간 經濟協力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目 次

第 I 章 序 論	1
第 II 章 中國의 軍事·安保戰略 變化와 軍事力 增強	5
1. 中國의 軍事·安保戰略 變化	5
가. 中國의 安保秩序 認識	5
나. 中國의 軍事·安保戰略	15
2. 中國의 軍事力 增強 展望	23
가. 軍 組 織 改 編	23
나. 武 器 · 裝 備 現 代 化	31
다. 軍 事 力 增 強 展 望	40
第 III 章 日本의 軍事·安保戰略 變化와 軍事力 增強 ...	44
1. 日本의 軍事·安保戰略 變化	44
가. 日本의 安保秩序 및 威脅 認識	44
나. 日本의 軍事·安保戰略	59
2. 日本의 軍事力 增強 展望	65
가. 在來式 軍事力	65
나. 核 潛 在 力	75
다. TMD 參 與 및 尖 端 軍 事 科 學 技 術 開 發	78
라. 軍 事 力 增 強 展 望	83

第Ⅳ章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에	
미칠 影響	89
1. 1990年代 東北亞 軍事·安保秩序 展望	89
가. 東北亞 4強間 力學關係 變化	89
나. 東北亞 4強間 軍事·安保關係 展望	93
2.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과 韓半島	98
가. 中·日의 對韓半島 軍事·安保政策 展望	98
나. 中·日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 安保에	
미칠 影響	106
第Ⅴ章 韓國의 考慮事項	113

第 I 章 序 論

냉전이후시대 유럽에서는 미·러간 戰略·戰術核 감축 합의 등 軍縮努力이 지속되고 있으나, 동아시아에서는 오히려 軍備競爭 움직임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동아시아 지역국들의 급속한 경제발전 속도와 지역국들 상호간의 잠재적 葛藤要因 및 지역내 다자안보협력기구 부재 등을 감안할 때,¹⁾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군비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은 지역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냉전체제 붕괴이후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軍事力을 증강함으로써 지역내에서 主導權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1978년이래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의 中長期 目標을 國家統一과 국제적 影響力 擴大에 두고 있는 바, 대만 및 南沙群島와 釣魚臺列島 등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

1) 東아시아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CSCE)와 같은 형태의 포괄적인 지역 다자안보협력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바, 이 점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잠재적인 불안정 요인을 통제하는데 소극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금년 7월 방콕에서 「아세안지역포럼」(ARF) 1차회의가 개최된 바 있고 美, 日, 러간 半公式 차원의 동북아 안보대화가 소집될 예정이지만, 역내 각국의 상호 상반된 입장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에서 포괄적인 형태의 안보협력기구가 조기에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Guo Zhenyuan, "Asian-Pacific Security System," *Window* (October 1, 1993), pp. 26~27 참조.

는 내용의 「領海法」을 제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27 전투기를 구입하고 중형급 항공모함을 자체 건조하려 하는 등 海軍力과 空軍力 현대화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군사적 역할 수행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은 최근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유엔 安保理常任理事國에 가입하고자 적극 노력함으로써 국제정치적 발언권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방위우산에서 벗어나 독자적 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核武器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自衛隊 전력증강을 기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1894년 이래 두차례에 걸쳐 대규모 전쟁을 경험하여 상대방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갖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勢力範圍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양국의 군사력 증강은 향후 동아시아지역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중국이 海軍力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향후 동북아시아의 制海權 장악을 위한 중·일간 군사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냉전이후시대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과도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동북아질서 및 韓半島 安保環境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역내에서는 「中國威脅

論」과 「新大東亞共榮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안보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바, 本研究는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향후 동북아질서 변화와 한반도의 安保 및 統一過程에 미칠 영향을 분석·전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냉전이후 아·태 안보질서 변화에 대한 중국의 認識과 이에 따른 安保戰略 수정 내용을 살펴보고, 중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군사력 증강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금세기 말까지 중국이 보유하게 될 軍事力을 가늠해 보기 위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 촉진요인과 제약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분석·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냉전이후 아·태질서 변화에 따른 일본의 安保戰略 수정 내용을 검토하고, 일본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自衛隊 전력증강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향후 동북아 군사·안보질서 변화에 주는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동북아 군사·안보질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동북아 군사 안보질서 변화가 韓半島 安保 및 統一環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분석·전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이에 따른 동북아 군사·안보질서 변화에 한국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Ⅱ章 中國의 軍事·安保戰略 變化와 軍事力 增強

1. 中國의 軍事·安保戰略 變化

모든 국가의 安保戰略은 그 국가가 처한 安保環境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1990년대 中國指導部가 냉전이후시대 국제 질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중국의 군사·안보 전략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가. 中國의 安保秩序 認識

중국지도부는 냉전이후 국제질서가 냉전시기 보다는 안정적이나 아직 기존 不安定要因이 도처에 潛在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분쟁요인이 나타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냉전이후 국제질서가 기본적으로 二重的 構造를 띠고 있으며,²⁾ 과도기의 국제질서하의 중국의 안보상황이 극히 불투명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1) 多極化와 單極化 趨勢 混在

중국은 냉전이후의 국제질서가 기본적으로 多極化의 경향

2) 중국이 냉전이후 국제질서를 이중적 구조로 파악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陳啓懋, “轉型期的動蕩根源和國際形勢特徵,” 「現代國際關係」, 1994年 第4期 (1994. 4), pp. 4~6; 潘振強, “當前世界軍事形勢,” 「人民日報」, 1993. 12. 24 참조.

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국제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유일 霸權地位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현 국제질서가 過渡期의 불확실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불안정한 질서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냉전체제가 와해된 이후 군사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됨으로써 더 이상 국제질서가 과거와 같이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 주도되던 상황이 계속되지 않게 되고,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 유럽, 일본 및 중국 등에 의한 多極體制가 새로이 형성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³⁾

중국은 러시아가 국내 정치·경제문제로 인하여 당분간 대외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⁴⁾ 미국 역시 對內 경제회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서 대외문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 하고 유엔 등을 통한 다자적 수단에 의해 국제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일본과 유럽 등이 경제력을

3) 중국은 냉전이후 국제질서가 「1-3-5구조」라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王殊, “認識新的世界,” 「國際展望」, 1993年 第4期 (1993. 2. 23), p. 4; 黃庭偉, 楊明杰, “蘇聯巨變後的國際形勢,” 「現代國際關係」, 1992年 第1期 (1992. 1), p. 3.

4) 그러나 중국은 러시아가 군사적으로는 세계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민족주의 성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국의 안정을 위협하고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俱孟軍, “俄致力恢復大國地位,” 「文匯報」(香港), 1994. 3. 16; 朱幸福, “俄羅斯不再順從美國,” 「文匯報」(香港), 1994. 4. 5.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정치적 발언권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은 국제질서의 다극화 추세는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⁵⁾ 지역 勢力均衡을 파괴하는 지역 強大國의 출현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특히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가 향후 중국의 안보에 잠재적 위협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⁶⁾

다른 한편, 중국은 현재 미국이 세계 유일 霸權國 地位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경제·과학·군사 등 종합 국력면에서 타국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⁷⁾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국제문제 해결과정에서 여전히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타국에 대해 미국의 가치관을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霸權行爲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구소련 붕괴이후 미국이 중국을

5) 국제질서의 다극화가 중국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Xu Xin, "Changing Chinese Security Perceptions," *North Pacific Cooperative Security Dialogue Working Paper*, no. 27 (April 1993), p. 11; Liu Zhongcheng, Guo Chuanling, "World Trends 1993,"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 No. 1 (January 1993), p. 4 등 참고.

6) 중국은 21세기 일본이 중국의 최대 위협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宗藍海, "中共議定國際頭號敵人," 「爭鳴」, 1994年 1月號 (1994. 1), pp. 16~18.

7) Sung Kuo-cheng, "International Situation in the 1990s: The View from Peking," *Issues & Studies*, Vol. 30, No. 2 (February, 1994), p. 34; 李長久, "世界主戰場轉向經濟領域," 「文匯報」(香港), 1993. 1. 1.

핵심 「和平演變」 대상으로 지목하여 인권문제와 무기수출문제 등을 구실로 중국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⁸⁾

(2) 世界大戰 可能性 減少와 地域紛爭 可能性 增大

냉전체제 붕괴이후 중국은 과거 미국과 소련 군사집단간 군사대결과 같은 형태의 강대국간 대규모 무력충돌 가능성이 감소되고 있는 반면, 냉전시기 수면하에 잠재해 있었던 民族矛盾과 宗教紛爭 및 領土紛糾 등 새로운 갈등요인이 분출됨으로써 소규모 지역분쟁 가능성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⁹⁾

중국은 냉전이후시대 세계 각국이 대외문제 보다 대내 경제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협정에 서명하고 同伴者關係를 수립하게 됨에 따라¹⁰⁾ 가

8) 중국은 미국이 향후 중국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부상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中國威脅論」을 제기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羅冰, 黎自京, “中共軍方插手對美政策,” 「爭鳴」, 1994年 5月號 (1994. 5), pp. 11-12; Ding Xinghao, “An Unstable Relationship,” *SIIS Paper* (December, 1993), p. 6.

9) 萬樹玉, “國際形勢座談會記要,” 「現代國際關係」, 1993年 第1期(1993. 1), p. 3; 宋以敏, “一年來地區衝突形勢特點,” 「人民日報」, 1993. 12. 23.

10) 중국은 러시아가 대내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동반자관계를 설정하였으나, 세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러시아가 미국과 이해를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Li Zhongcheng, Guo Chuanling, op. cit., p. 9; Lu Zhengrong, “Why the United States Aids Russia,” *Beijing Review*, April 19-25, 1993, pp. 7~8 참조.

까운 시일내에 미·러간 군사대결 발발 가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냉전이후시대 국가간 경쟁의 중점이 군사부문에서 경제부문으로 이전되고 있는 점도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강대국간 무력대결 가능성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¹¹⁾ 중국이 냉전이후시대 세계질서의 특징을 平和와 發展이라는 두개의 개념에 의해 정의하고 있는 점도 세계적 차원의 대규모 무력분쟁 발발 가능성이 감소되고 있다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당분간 세계적 차원의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지역적 차원의 소규모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은 냉전시대 보다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현국제질서하에서도 여전히 국가간 이익확보를 위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고, 냉전시대에 미·소간 대립구도하에서 분출되지 않고 억제되었던 민족간·종파간 갈등, 종교분쟁 및 영토분쟁 등이 새로운 地域紛爭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냉전이후시대 국가간 경쟁의 중점이 군사부문 이외의 경제 등 綜合國力 부문으로 이전됨으로써 국가간 이익확보를 위한 경쟁이 과거 보다 심화되고 광범위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¹²⁾ 또한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대외문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한으로 억제

11) 陳啓懋, 앞의 글, pp. 4~5.

12) 王殊, 앞의 글, pp. 4~5.

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지역 강대국을 지향하는 국가로 하여금 勢力空白을 메우고자 하는 욕망을 고취시키게 되고, 상대적으로 냉전체제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던 유럽지역에서 민족분쟁과 영토분규가 끊임없이 촉발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아·태지역에서도 한반도문제 등 분단문제와 南沙群島 등 영토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어서 지역안정 및 중국의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¹³⁾

중국은 금세기말까지 새로운 질서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고 과도기의 불안정적이며 불확실한 질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가간 영향력 확보와 민족간 세력 확대를 위한 지역분쟁이 해소되기 보다는 심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지역분쟁은 大地震 이후에 나타나는 餘震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大地震을 예고하는 前兆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¹⁴⁾ 지역분쟁이 대규모 세계대전으로 비화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강대국과 지역 강대국들이 현단계에서 세계 대전이나 대규모 지역분쟁에 개입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

13) Yan Xuetong, "China's Security after the Cold War,"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 No. 5 (May 1993), pp. 3~5.

14) 譚取榮, "國際形勢座談會記要," 「現代國際關係」, 1993年 第1期(1993. 1), pp. 4~5.

다는 점이다. 둘째, 강대국들이 구소련과 동구 지역에서 대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중동과 아시아지역 등지에서 안정이 유지되는 것이 강대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3) 經濟競爭과 軍備競爭 併存

중국은 냉전체제가 와해된 이후 국가간 경제적 실리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냉전의 후유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 국가간 軍備競爭도 지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구소련 붕괴이후 경제력을 중심으로 하는 綜合國力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게 됨으로써 세계 각국이 경제발전에 매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냉전이후 국제관계에서 경제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국가간 경쟁의 중심이 군비경쟁에서 종합국력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¹⁵⁾ 중국은 과거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해온 사회주의 국가들이 기존 국제경제체제에 편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서방간 經濟摩擦이 심화되고, 남북간 경제격차가 확대될 것이며, 서방 선진국들이 사회주의 국가와 미

15) 延遠, “冷戰後國際形勢特點,” 「國際問題研究」, 1993年 第3期 (1993. 7), pp. 9~10.

개발국에 대한 경제지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¹⁶⁾ 중국은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짐으로써 서방국가간 단결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미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반면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제력이 확대됨에 따라 서방국가간 경제적 모순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서방국가간 경쟁적 요인보다는 협력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¹⁷⁾ 중국은 오히려 서방국가들이 타국에 대한 경제원조시 자유와 민주주의와 같은 서방의 가치관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경제문제를 政治手段化 하고 있는 점이 더 심각한 국제질서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¹⁸⁾

다른 한편, 중국은 냉전이후시대에 있어서도 강대국간 세력확대를 위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고, 지역국들 사이에도 분쟁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균축이 완전히 실현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냉전시기부터 존재해 왔던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미·일 동맹 등 군사동맹 기구들이 존재하고 있고, 지역국간 군비경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러간 核軍縮協定 체결

16) 王和興, “90年代世界經濟的大趨勢,” 『國際問題研究』, 1993年 第2期(1993. 4), pp. 13~14.

17) 取榮, 앞의 글, p. 4.

18) 萬樹玉, 앞의 글, p. 2.

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 내부 사정에 의해 협정대로 군축이 이루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¹⁹⁾ 또한 중국은 미·러 양국이 아·태지역에 군사력을 계속 주둔시킴으로써 지역 긴장과 갈등을 조성하고 중국에도 潛在的 威脅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²⁰⁾

(4) 世界經濟의 集團化와 民族分離主義 趨勢

중국은 세계경제가 集團化 추세를 보이고 국가간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증대됨으로써 국제사회의 통합 움직임이 가속화 되는 일면, 냉전체제 붕괴에 따른 불확실한 국제질서하에서 民族分離主義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중국은 유럽과 북미 및 아시아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 집단화 추세가 현 국제질서의 주요 특징이라고 보고 있다. 유럽공동체는 1992년말 이미 상품과 노동력, 서비스 및

19) 이와 관련, 중국은 지하 핵실험을 지속함으로써 핵무기 보유국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핵실험 잠정 유예체제를 위협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핵실험 재개문제에 대해서는 申相振,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정세 보고서, 93-07 (1993.10) 참조.

20) 중국은 현재 한반도와 일본 등 동북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지역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지역긴장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한·미 팀스피리트훈련과 한국에 대한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申相振,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90; “孤立朝鮮并不可行,” 「文匯報」(香港), 1994. 3. 28.

자본의 자유이동을 허용하는 통일시장을 이룩하게 되었고,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체결됨으로써 1994년 1월을 기해 17개 국가로 구성된 유럽경제권이 형성되고 금세기 말까지 화폐통합과 정치통합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3년말 이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 의해 북미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게 되었다. 아울러 1993년 11월 시애틀 비공식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태지역에서도 아·태경제협력체를 중심으로 하는 經濟集團化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²¹⁾

또한 중국은 교통과 통신수단의 진보로 국가간 거리가 단축되게 되고, 국가간 경제의존도 증대로 世界市場이 점차 긴밀하게 통합되는 추세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1993년말 가트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로 세계경제의 통합이 더욱 심화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세계경제 집단화 현상이 민족과 국가의 범위를 초월하는 국제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가간 상호 의존도를 더욱 증대시키고 국가간 협력관계를 유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²²⁾

21) 王和興, “世界經濟區域集團化的新發展及問題,” 「國際問題研究」, 1993年第4期 (1993. 10), pp. 32~39.

22) 李長久, “亞太在世界經濟中的地位 and 影響,” 「瞭望」, 1993年第48期 (1993. 11. 29), pp. 57~58.

그러나 다른 한편, 중국은 구소련과 동유럽 그리고 제3세계 국가에서 民族分離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기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구소련은 이미 15개의 독립국가로 분리되었으며, 유고는 5개의 국가로 분열되었고, 체코도 2개 국가로 분열되었다. 이러한 민족분열주의 현상은 향후 56개 少數民族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에 게도 커다란 위협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西藏지역의 회교도 분리독립 문제에 직면해 있는 중국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연합내 민족의 분리운동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²³⁾

나. 中國의 軍事·安保戰略

上記한 바와 같이, 중국은 조만간 세계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制限的 局地戰爭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안보질서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중국은 새로운 軍事·安保戰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23) 이와 관련, 최근 중국은 李鵬 총리를 중앙아시아와 몽고에 파견하는 등 분리독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외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王殊, “大變化中的世界,” 上海國際問題研究所編, 「國際形勢年鑒, 1993」(上海: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3), pp. 17~18; Li Peng, “China’s Basic Policy Towards Central Asia,” *Beijing Review*, May 2-8, 1994, pp. 18~19.

(1) 積極的 防禦戰略

과거 중국은 구소련의 군사위협을 자신의 안보에 가장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간주하여 구소련과의 접경지역 방어에 중점을 두어왔다. 중국은 독자적으로 구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과 반소 聯合戰略을 채택하였다. 또한 중국은 국력의 제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접경지역 이외 지역문제에 대해 군사적으로 개입하기가 곤란하였다. 따라서 냉전시대 중국은 자국의 영토보존을 위한 消極的 防禦戰略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방어전략을 적극적이고 팽창적인 방향으로 수정하고 있다.²⁴⁾ 첫째, 1990년대에 들어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등 다극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역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유리한 대외적 조건하에서 중국군의 활동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 발언권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일본의 해군력 팽창이 「新大東亞共榮圈」 실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여 南支那海와 東支那海에서 제해권을

24) 鄧小平, “我們的戰略方針是積極防禦,” 「鄧小平論國防和軍隊建設」(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2), pp. 98~99; 李鵬, “政府工作報告,” 「文匯報」(香港), 1994. 3. 24; 鄭文翰 編, 「毛澤東思想研究大系」, 軍事券(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3), pp. 396~400.

장악하고자 하고 있다.

둘째,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한 이래 중국이 접경지역 안보문제 이외에도 海洋安保 문제를 중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일본 및 서방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최근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원유 등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바,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南沙群島의 영유권 장악 등 南支那海와 東支那海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²⁵⁾ 이와 관련, 중국은 1992년 「領海法」을 제정하여 주변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南沙群島, 西沙群島 그리고 釣魚臺列島 등을 중국영토로 규정한 바 있다.

셋째, 중국은 금세기내에 대만통일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는 바, 팽창적이고 공격적인 군사 안보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一國兩制」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만 내부의 분리독립 요구가 확산되고 대만을

25) 최근 중국경제가 연 10% 이상의 고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바, 중국은 에너지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남사군도와 서사군도 해저에 원유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중국은 이 지역의 영유권 확보를 위해 해군력을 증강하는 등 원양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방어 개념으로 안보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Hisahiro Kanayama, "The Future Impact of Energy Problems in China," *IIPS Policy Paper*, 124E (June 1994), pp. 5~23; Michel Richardson, "Energy Needs of China Fuel Weapons Scenario,"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3. 5. 5.

이용한 미국의 중국견제 움직임이 강화됨에 따라²⁶⁾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수호이 27전투기를 廣州軍區에 집중 배치한 것도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1990년대 중국이 大洋進出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팽창전략을 채택한 데에는 중국의 대내정치적 요인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최고지도자 鄧小平의 건강악화로 인하여 권력승계의 과도기에 처해 있는 바, 江澤民을 비롯한 개혁파 지도부는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군 현대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현지도부는 권력승계 과정에서 군부가 전통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 군사력의 활동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²⁷⁾

중국은 현재 南沙群島의 영유권 확보, 대만통일 과정에서 유리한 환경 조성, 일본의 해군력 팽창 등에 대비하는 것을 1990년대 안보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인식하고 있는 바, 중국의 안보전략의 일차적 관심은 변경방위 문제로부터 해양과 영공방위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해군전략

26)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蜀聲, “中共鬪美—王牌—北韓核武,” 「爭鳴」, 1994年 5月號, pp. 76~78 참조.

27) 이와 관련, 중국은 1992년 10월 中國共產黨 제1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黨中央 軍事委員會 副主席 劉華清을 당정치국 상무위원에 발탁하였으며, 중국해군의 방어범위를 원양지역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을 연안방어 전략으로부터 원양방어 전략으로 전환하는 한편, 「海軍力整備方針」(2050년 완수 예정)을 확정하여 원양방어에 필요한 해군력 증강을 모색하고 있다.²⁸⁾

이와 같은 중국의 적극적 방어전략은 중국의 경제력 등 종합국력이 신장될 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으로 이룩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이 南支那海와 東支那海 등 주변해역을 자국의 배타적 영향권내에 둬으로써 역내에서 발언권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 局地戰 對備 戰略

과거 毛澤東시기 중국은 미국과 구소련의 우세한 핵무기에 정면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광대한 국토와 막대한 인구를 활용하여 적을 내지로 유인, 격파한다는 人民戰爭 전략을 채택하였다.²⁹⁾ 그러나 1979년 베트남에 대한 응징전에서 실패한 이후, 중국은 여러 병종간의 합동작전 능력과 신속대응 능력을 중시하는 현대적 조건하의 인민전쟁 전략으로 안보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중국이 현대적 조건하의 인민전쟁 전략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 실

28) 「文匯報」(香港), 1993. 8. 1.

29) 이에 대해서는 鄭文翰 編, 앞의 책, pp. 200~40; 黃炳茂, 「新中國軍事論」(서울: 法文社, 1992), pp. 114~17 등 참고.

시 이후 산업시설이 각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종래의 인민전쟁 전략은 국토를 황폐화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진방어지역에서 적의 공격을 격퇴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냉전이후시대에 들어 가까운 시일내에 세계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감소된 반면 제한적 局地戰爭이 일어날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변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분쟁에 신속하게 대처해야만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³⁰⁾ 아울러 중국은 첨단무기가 전쟁에 사용되는 현대전에서는 전쟁 초기의 결과가 전쟁의 최종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 최근 중국이 지역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일부 핵탄두를 재래식 탄두로 대체하여 인도북부, 중앙아시아 지역, 베트남 등 중국안보에 위협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것도 지역분쟁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³¹⁾

이와 관련, 중국은 1985년 黨 中央軍事委員會 擴大會議를 통해 냉전시기 강조하였던 「대규모, 핵전쟁」(大打, 打核戰爭) 대신 「소규모, 통상전쟁」(小打, 打常規戰爭)에 대비한다는 새로운 안보전략 대강을 확정하였다.³²⁾ 이러한 안보전략

30) 丁樹範, “波斯灣戰爭對中共解放軍的影響,” 「中國大陸研究」, 第34卷 第12期 (1991. 12), pp. 27~36.

31) *Jane's Defence Weekly*, January 29, 1994, p. 1.

32) 傅全有, “堅定地研着新時期建軍思想指引的方向前進,” 成都軍區軍事學術研究指導委員會 編, 「新時期軍隊建設思想研究」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8), p. 6; 「解放軍報」, 1985. 6. 5.

지침에 의거 중국은 국방조직을 새로운 실정에 부합되게 집단군 체제로 재편하고 신속대응군을 신설하는 등 군의 화력과 기동력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3) 最大 核抑止戰略

과거 중국은 전쟁의 승패가 현대무기에 의해서 결정되기 보다는 인민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인식과 핵무기가 「종이 호랑이」(紙老虎)에 불과하다는 판단하에 핵무기 개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으나, 핵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가해질 수 있는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여 왔다. 또한 중국은 핵무기가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공산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제고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정책을 고수하여 왔다.³³⁾

그러나 1990년대이후 중국의 핵戰略은 수세적 태세에서 보다 공세적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최소 억제를 위해서는 200메가톤 정도의 핵무기 위력이 필요하나 500메가톤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핵실험 유예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핵탄두의 소형화와 정밀화를 통해 서방과의 핵기

33) 黃炳茂, 앞의 책, pp. 164~68; 申相振, “중국의 핵실험이 국제 및 동북아정세에 미칠 영향,” pp. 2~3; “China’s Nuclear Force Called Minimal.”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25, 1994.

술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핵실험을 재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³⁴⁾ 1990년대에 들어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대폭 감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궁극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정도로 핵능력을 제고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⁵⁾ 중국은 당분간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第二核攻擊能力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대규모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와 같이 핵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핵무기가 갖고 있는 效用성과 戰略的價値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제한적인 국방예산으로 단기간내에 軍事裝備를 현대화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핵전력을 강화함으로써 최대 안보위협 국가인 미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核霸權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북한 등 역내국가의 핵무기 개발이나 이에 대

34) 중국은 미사일 핵탄두의 성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1993년 10월 90킬로톤 규모의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바 있고, 1994년 6월에도 1996년 전면 핵실험금지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핵무장 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폭 실험을 실시하였다. Patrick E. Tyler, "Nuclear Club Distressed by China's Test of H-Bomb,"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11-12, 1994.

35) 이와 관련,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도로 핵무기를 감축하지 않으면 핵실험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文匯報」(香港), 1993. 10. 6.

한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³⁶⁾

2. 中國의 軍事力 增強 展望

1980년대 말까지 중국은 한정적인 자원을 경제건설에 집중하기 위해 「先 경제건설, 後 국방건설」 정책을 채택하여 왔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社會主義 初級段階」하에서 국방비 지출을 과도하게 책정할 경우 경제발전의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군사력 증강 문제를 덜 중시하여 왔다.³⁷⁾

그러나 중국은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1990년대에 들어 국방비 지출을 매년 대폭 증액하는 등 군사력 증강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1994년에도 중국은 국방 예산을 1993년 대비 20% 증액된 520억원(1달러=8.5元)으로 책정하여 군사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먼저 현재 중국의 군사력은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향후 중국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까지 증강될 것인지를 분석·전망하기로 한다.

가. 軍 組織 改編

중국은 기존의 軍 組織體制가 비능률적이고 산만하여 군의

36) 申相振, 앞의 글, p. 4.

37) 傅全有, 앞의 글, pp. 7~10.

전투력 향상을 저해하여 왔다고 인식, 1980년대 이래 軍區編制 개편, 군지도부 인사개편, 군관의 복무조례 제정, 合成軍 조직 및 「快速反應部隊」 설립 등을 통해 군의 정예화, 신속 대응군화, 정규화를 도모하고 있다.

(1) 精銳化

중국은 대륙국가로서 전통적으로 변경방어 문제를 중시하여 왔는 바, 많은 병력을 필요로 하는 陸軍을 중심으로 하는 병력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또한 중국은 현대적인 무기·장비보다도 군 병력의 수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판단하에 「人海戰術」을 채택하여 왔다. 이와 관련,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人民解放軍을 보유하고 전통적인 부대 편제를 고수하여 왔고, 이는 중국군의 정예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따라서 중국은 현대적 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군을 정예화할 필요하에 1980년대 후반부터 군 병력을 감축하고, 軍區 편제를 개편하는 동시에 엄격한 훈련을 통해 군의 전투력 증강을 도모하여 왔다.

첫째, 중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4백만명을 넘는 병력을 감축하여 현재 230만명의 육군, 26만명의 해군, 47만명의 공군 등 약 303만명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 총인구중 군병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1.3%)이나 독일(7.9%) 등에 비해 훨씬 낮은

0.26% 정도에 불과하고 있다.³⁸⁾ 또한 1985년부터 1987년까지 감축된 약 1백만명의 병력중 대부분이 실제 전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연로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육군이었고, 해군과 공군 병력은 기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중국은 군의 量보다 質을 우선시한다는 방침하에 병력을 점차 감축하고, 이에 따른 재정상의 여유분을 군장비 현대화에 투자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중국은 기존 11개에 이르는 방만한 軍區編制를 7개의 군구로 개편하였으며,³⁹⁾ 향후 군구를 더욱 축소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군구편제의 축소개편은 상급지휘기구의 군살을 빼내어 군 작전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軍區編制를 축소개편한 이유중의 하나는 미래전쟁이 지역분쟁이 주종을 이룰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⁴⁰⁾

셋째, 중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기 장비를 이용하여 國家安全을 보위하기 위해서 엄격한 훈련과 규율을 강조하고 있다.⁴¹⁾ 중국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장비가 미국이나

38) 일본 총인구중 군병력 비율은 0.24%이다. 「廣角鏡」, 1993年 12月號, p. 30.

39) 7개의 軍區는 北京軍區, 瀋陽軍區, 南京軍區, 濟南軍區, 廣州軍區, 成都軍區, 蘭州軍區 등이다.

40) 丁樹範, “中共精簡軍隊的內容 性質與未來,” 「中國大陸研究」, 第35卷 第9期 (1992. 9), p. 55.

41) 이에 대해서는 東方載, “中共軍事重心南移,” 「中國大陸」, 第27卷 第5期 (1994. 5), p. 83 참조.

러시아에 비해 훨씬 낙후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부족한 국방예산으로 단기간내에 군사장비를 현대화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1979년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성공하지 못한 궁극적인 이유가 현대 무기·장비의 부족 보다는 병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과 병종간 統合作戰 미비 때문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⁴²⁾ 따라서 중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훈련, 전략전술 및 군체제 개편 등을 통해 엄격한 규율과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군대를 양성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혁 개방정책에 따른 경제발전 결과 군부가 전투력 증강 보다는 경제이익 확보를 우선시 하는 등 규율이 해이해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는 중국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迅速對應軍化

중국은 강대국간 대규모 전쟁이 당분간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구소련의 침략 등 대규모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편성되었던 군조직을 새로운 안보환경에 알맞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특히 중국은 앞으로 제한적 국지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

42) King C. Chen, *China's War With Vietnam, 1979: Issues, Decisions, and Implications* (Stanford,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1987), pp. 146~49.

고 인식하여 군의 機動力을 증강함으로써 돌발적 地域紛爭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군의 신속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첫째, 각 군구내에 集團軍을 창설하여 화력과 기동력을 증강함으로써 변경지역에서 발생될 제한적 분쟁에 대비하고자 하고 있다. 집단군은 보병, 포병, 장갑병, 육군항공대, 공병, 대전차부대 등 각종 부대를 합성한 것으로서 1983년 北京軍區내에 최초로 창설되었으며, 1985년까지 중국의 모든 野戰軍이 집단군으로 재편성되게 되었다. 현재 중국은 24개 집단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1992년에는 총참모부 직속의 장갑병, 포병, 방화병 및 공병 등 4개 병과를 통합한 「特種部隊」를 창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이러한 집단군이 현대전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속대응능력, 민첩한 지휘능력 등 전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집단군의 전술기동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⁴³⁾

43) Paul H. B. Godwin, "Chinese Defense Policy and Military Strategy in the 1990s,"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ed., *China's Economic Dilemmas in the 1990s: The Problems of Reforms, Modernization, and Interdependence* (Armonk: M.E. Sharpe, 1992), p. 655.

〈표 1〉 24개 집단군 배치상황

軍 區	集 團 軍 (주둔지)
瀋陽 군구	39군(營口), 64군(本溪), 40군(錦州), 23군(哈爾濱), 16군(長春)
北京 군구	24군(承德), 28군(大同), 38군(保定), 65군(張家口), 63군(太原), 27군(石家莊)
蘭州 군구	21군(永登), 47군(臨潼)
成都 군구	13군(成都), 14군(開遠)
廣州 군구	41군(柳州), 42군(惠陽)
濟南 군구	54군(新鄉), 26군(芥陽), 67군(寶山), 20군(開封)
南京 군구	12군(蘇州), 1군(福州), 31군(廈門)

둘째, 1989년 이래 중국은 각 군구에 「快速反應部隊」를 설치하여 군의 기동력 증강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24개 집단군내에 쾌속반응부대를 신설하였으며, 1957년 폐지되었던 해병대를 1980년 5월 재창설하는 동시에 해군육전대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⁴⁾ 또한 중국은 중국군의 지휘, 통제, 통신, 정보(C3I) 능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⁴⁵⁾ 그러나 중국군은 아직 통신 전자부문 등이 낙후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근해지역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역분쟁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民兵制度의 개혁을 통하여 신속한 동원체제를 확립

44) 앞의 글, pp. 656~57.

45) 丁樹範, “論四十餘年來共軍的發展,” 「中國大陸研究」, 第35卷 第12期 (1992.12), p. 30.

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기존의 민병제도가 현대조건의 전쟁에 합당하지 못하므로 이를 인민무장경찰대와 예비군으로 발전적으로 해체하였다. 중국이 예비군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은 전시 전인민을 동원하기 보다는 평시에 훈련된 강력한 예비군을 확보, 이를 정규 사단화하여 작전에 투입함으로써 돌발적 국지전쟁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⁴⁶⁾

(3) 專門化·正規化

高崗사건과 文化大革命 등 과거 중요한 정치투쟁에 군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었던 점이 중국군의 현대화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⁴⁷⁾ 따라서 중국은 현대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되고 군을 전문화 하고 정규화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군의 전문화와 정규화와 관련하여 중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첫째, 黨軍關係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중국에서 군대는 共產黨에 의해 통제되어 왔는 바, 이는 중국정치 안정을 기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해 온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공산당에 의한 군의 통제는 군을 대내정치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중국군의 전

46) 황병무, 앞의 책, pp. 190~191.

47) 이에 대해서는 丁樹範, 앞의 글, pp. 25~27 참조.

력약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1983년 이래 당 중앙군사위와는 별도로 국가 중앙군사위를 설치하여 종전의 黨軍에서 국가의 正規軍으로의 전환을 점진적으로 기해왔다.

둘째, 군부내에서 派閥을 조장하는 세력을 사전에 숙청함으로써 군의 정치개입 및 군사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파벌대립이라는 폐단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1992년 14차 黨大會를 전후로 군부내에 파벌을 조장함으로써 군을 사조직화 하였던 楊尙昆과 楊白氷을 추종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젊고 전문지식을 가진 직업군인을 군 요직에 등용하여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제거하고 군부의 단결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⁴⁸⁾

중국이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이유중의 하나는 地方分權化 추세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과도 관련되어 있다. 20세기초 중국이 군벌에 의해서 분할통치 되었던 것처럼 중국정치에서는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대립을 보여 왔다. 개혁개방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상당부분 지방정부에 이양해 왔는 바,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는 당연히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게 되었고, 중국은 이러한 지

48) "The Fourteenth Party Congress In Session," *China News Analysis*, no. 1471 (November 1, 1992), pp. 8~11; *South China Morning Post*, January 27, 1993.

방분권화 추세속에서 군부가 지방세력과 결탁해서 중앙정부에 대항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⁴⁹⁾

셋째, 중국은 군의 정규화를 위해 4년제 사관학교를 설립(1983.9)하고, 대졸간부 후보생 제도를 도입(1984.2)하는 등 군간부의 4화(연소화, 지식화, 전문화, 혁명화)를 추진하여왔다. 나아가 1988년은 군관의 服務條例를 제정(1994년 개정)하고 계급제도(1965년 폐지)를 부활(1994년 수정)시킴으로써 군의 전문화와 정예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핵무기, 우주, 항공 등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문관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군관복무조례를 통하여 군관의 정년을 규정하고 진급시 군사학원 이수를 요구한 것은 중국군의 연경화와 전문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⁵⁰⁾

나. 武器·裝備 現代化

결프전 등 현대전에서 첨단 무기·장비의 위력이 입증됨에 따라 중국은 군사비 부족에도 불구하고 무기·장비 현대화를

49) 지방분권화 주장 세력과 중국 지방군부와의 결탁 가능성에 대해서는 俞劍鴻, “地域主義與中共七大軍區,” 「中國大陸研究」, 第35卷 第4期 (1992. 4), pp. 34~54; Gerald Segal, “The Middle Kingdom?: China's Changing Shape,” *Foreign Affairs*, vol. 73. no. 3 (May/June 1994), p. 58.

50) “中國人民解放軍現役軍官服務條例,” 「人民日報」, 1994. 5. 15.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海軍과 空軍의 現代化에 역점을 두고 무기·장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는 바, 현재 중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장비의 수준을 검토해 보고, 향후 中國軍이 어느 정도까지 첨단화된 군사장비로 武裝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전망해 보기로 한다.

(1) 陸軍 武器·裝備

중국은 현재 15개 국가와 國境을 마주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선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 바, 邊境地域 防禦에 국방의 우선권을 두어왔다.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후 해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인도와 베트남 등으로부터 예상되는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막강한 戰鬥力을 보유한 地上軍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地上軍을 7개 大軍區, 84개 보병사단, 7개 야전포병사단, 4개 방공포병사단, 24개 집단군, 6개 쾌속반응부대, 3개 헬기부대 등으로 편성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지상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 지상군은 8,000대의 전차, 2,000대의 경전차, 14,500문의 견인포, M-9(사정거리 500Km), M-11(사정거리 1,500Km), HN-5 미사일, Z-9 헬리콥터 등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⁵¹⁾

51) IISS, *Military Balance, 1992-1993*, p. 152.

그러나 이들 장비들은 대부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사용되던 무기들이기 때문에 중국의 지상군은 재래식 공격을 억지 또는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火力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대화 군으로서 요구되는 機動性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최근 변경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局地戰 수행 능력과 機動打擊 능력을 구비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상군 장비 현대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현재 야포중 세계 최대 사정거리를 가진 8인치포를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하고 있으며,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 침단화력 통제장치를 구비한 T-90 형 전차를 개발하여 이미 80대를 北京軍區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⁵²⁾

(2) 海軍 武器·裝備

중국 해군은 東海, 南海, 北海 등 3개 함대를 비롯하여 잠수함사령부, 해병대 그리고 沿岸防禦部隊로 편성되어 있다. 중국 해군은 또한 미국(50만)과 러시아(30만) 다음의 세계 3위에 이르는 26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잠수함 47척(탄도미사일 탑재 전략핵 잠수함 1척, 전술 잠수함 45척, 골프급 잠수함 1척), 구축함 18척, 프리키트함 38척, 연안초계정 870척, 어뢰정 126척, 수륙양용함정 51척 등을 보유하

52) *Jane's Defence Weekly*, May 8, 1993, pp. 22~23.

고 있다.⁵³⁾ 현재 중국의 해상전투함으로는 구형인 구축함과 프리키트함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잠수함함대도 장비가 열악한 상태에 있는 바, 중국해군의 장비는 전반적으로 1960년대 서방국가의 해군장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해군이 南中國海上의 도서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수준에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여 해군력 증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張連忠 중국 海軍總司令官도 해군지휘관회의에서 중국영해와 인접수역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해군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⁵⁴⁾ 중국이 대외의존적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있고 원유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당분간 해군력 증강을 통해 안정적인 해상교통로를 확보할 필요성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특히 南中國海 해저에는 엄청난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국은 원양지역에서 전투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해군함대를 보유하고자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중국은 1991년 「海軍力 增強計劃」(1992-2000년)을 마련하여 원양작전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南中國海에 대한 제해권 확보, 印度洋과 太平洋 등 대양진출을 도모하고자 하고

53) IISS, 앞의 글, pp. 152~55.

54) 「文匯報」(香港), 1992. 4. 20.

있다.

따라서 중국은 1980년대 중반이후 기존 해군장비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旅大級(3,900톤) 구축함 2척과 江湖級(2,000톤) 프리키토함 1척을 헬리콥터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조하여 실전에 배치하였고, 신형원자력 잠수함과 미사일탑재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다.⁵⁵⁾ 또한 중국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의 신형 夏級 핵잠수함을 건조하여 東海艦隊에 배속시켰으며,⁵⁶⁾ 21세기초까지 실전에 배치할 것을 목표로 40~50기의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중형 항공모함(4만 8천톤급) 건조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⁷⁾

그러나 당분간 중국이 南中國海 등 원양지역에 대해 제해권을 안정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모함을 보유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항공모함 구매 및 운용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공모함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장교를 배양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항공모함은 적의 잠수함과 미사일에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보호무기 체계가 필요하나 현단계로서는 중국이 이러한 능력을 구비하

55) 「讀賣新聞」, 1993. 2. 15.

56) 鄭德林, “中共將改善海軍空軍裝備,” 「鏡報」, 1994年 2月號, p. 63.

57) Robert Karniol, “China ahead in Asian States’ post-Cold War battle,” *Jane’s Defence Weekly*, September 25, 1993, p. 19.

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항공모함 보유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⁵⁸⁾

(3) 空軍 武器·裝備

중국공군은 7개 大軍區내에 편성된 공군사령부가 있고, 총 50여개 전투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장비는 J-6(미그 19)과 J-7(미그 21) 등 4,000대의 전투기, IL-28 등 약 470대의 폭격기, Q-5 등 500대의 요격기, 600여대의 수송기 및 400대의 헬리콥터 등이다. 중국 공군의 主力 機種은 J-6과 J-7이며, 이들은 구소련의 미그 19기와 미그 21기를 복제한 것으로써 구소련이 1950년대 말부터 생산을 시작한 것이다. 또한 중국이 1987년 자체적으로 개발한 F-8 전투기도 아직 본격적으로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성능이 낙후된 중국 공군기의 대부분이 제대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연한을 넘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⁹⁾

이와 같이 空軍의 장비가 낙후된 상황에서는 海軍의 원양 작전을 제대로 지원하기 곤란하고 외부세력의 위협에 중국이 취약성을 보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南中國海지역 등 원양

58) 凌宇, “中國新武器的發展趨勢,” 「廣角鏡」, 1993年 12月號, p. 31.

59) Robert J. Skebo, Gregory K.S. Man, and George H. Stevens, “Chinese Military Capabilities: Problems and Prospects,”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ed., op. cit., pp. 666, 673.

지역으로 군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중국은 타 분야에 비해 공군 장비 현대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공군 裝備 現代化는 재정상의 어려움과 과거 소련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빚은 부작용으로 인하여 자체 개발에 우선을 두고 있으나,⁶⁰⁾ 기술적인 한계로 인하여 러시아 등 외부로부터 첨단무기 구입을 통해서 병행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F-8, H-7 초음속 폭격기 및 XJ-10 등 레이다망 포착능력을 제고시킨 전천후용 신형 전투기를 개발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⁶¹⁾ 그러나 중국이 추진해 온 공군 장비 현대화 계획이 현재까지 중국 공군의 작전 수행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1991년 이래 러시아로부터 전투기(기술) 도입을 통해 공군 장비 현대화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1991년 江澤民의 모스크바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의 수호이 27전투기 구매문제를 논의하였고, 1992년 삼소노프 러시아 국방부장의 방중시 동 전투기 구매계약을

60) 1950년대 중국은 소련 일변도정책을 채택, 군사 장비를 대부분 소련으로부터 구입하여 왔으나, 1960년 소련의 원조 중단으로 심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의 이러한 경험은 외국에 대한 과도한 군사기술 의존정책이 외부의 압력에 중국을 취약하게 할 수 있다는 교훈을 갖게 하였다. 來金烈 等, “堅持軍民結合, 發展兵器工業,” 「人民日報」, 1991. 10. 23; 陳哨賓, “劉華清說中國反霸但不稱霸,” 「鏡報」, 1994年 5月號, p. 62.

61) *China Daily*, September 29, 1993.

체결하였다. 또한 1992년말 옐친의 방중시에는 러시아와 1995년까지 「군수물자 교역에 관한 비밀협정」을 체결하였으며,⁶²⁾ 1994년 체르노미르딘 러시아 총리 방중시에도 수호이 27전투기와 미사일 등 첨단무기 생산기술 이전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러시아와의 활발한 군사교류를 통해 중국은 현재까지 수호이 27전투기 26대, IL-76 장거리 수송기 10대, SA-10 지대공 미사일 18기 등을 구입하였고, 미그 29전투기와 미그 31전투기 생산기술 도입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⁶³⁾

한편, 중국은 공군 전투기의 作戰 半徑을 확대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개발 또는 도입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지는 못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영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코콤(COCOM)의 거부로 무산되었으며, 최근에는 이란과 러시아로 空中給油 기술을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공중급유기 확보가 미칠 파장으로 인하여 러시아가 공중급유기 기술수출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62) 莫斯科華語廣播輯要 (臺北), 1993. 4. 18, pp. 2~3.

63) Tai Ming Cheung, "China's Buying Spree," *Far East Economic Review*, July 8, 1993, pp. 24~25.

(4) 核武器

1964년 核實驗 이후 중국은 외부로부터 핵 공격 혹은 위협을 억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핵전력을 증강해 왔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소하지만 신뢰성 있는 核抑止力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중국은 현재 9만 명의 전략 로켓 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450개의 核彈頭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핵탄두 운반 미사일로서 지대지 중거리 미사일(1966년), 대륙간 탄도 미사일(1980년),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1982년) 등을 개발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 탑재 미사일의 성능을 제고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8기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약 90기의 중거리탄도미사일 그리고 12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서 주변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대해 핵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중국은 사정거리가 1만 2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확대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핵탄두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1993년 가을과 1994년 여름 약 90킬로톤급 地下 核實驗을 실시하였던 바 있다.⁶⁴⁾

64) "China Nuclear Force Called Minimal,"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25, 1994.

그러나 중국의 核戰力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등 핵초강대국에 비해서는 훨씬 열등한 상황에 처해 있다. 核彈頭 면에서 볼 때,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1만 5백개와 1만 5천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450개 정도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한 核中等國家이다. 또한, 핵탄두 운반 미사일에 있어서도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현재 핵탄두의 양적 증대 보다는 핵무기의 질적 수준을 개선시키는데 전력하고 있으나, 중국의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중국이 단기간내에 핵초강대국으로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 軍事力 增強 展望

1990년대에 들어 중국은 武器의 質과 軍組織의 精銳化가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인식, 군사 무기·장비 현대화와 군 조직 개편 등을 통해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여 왔다. 현재 중국의 군사력은 기술적·재정적·정치적 요인 등으로 말미암아 미국과 러시아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 상황이나, 동아시아 주변국에게는 커다란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은 경제력이 축적됨에 따라 國防豫算을 증액함으로써 군사력 증강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경제기구의 평가에 의하면, 21세기초 중국의 경제력이 세계 최대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⁶⁵⁾ 중국의 經濟力 신장은 자연히 국방예산 증액을 가능하게 하여 중국의 軍事力 증강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방대한 영토와 인구 등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제약이 없을 경우 軍事 強大國을 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대만의 주권 회복과 南中國海에 대한 제해권 확보 등을 장기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鄧小平 사후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군부의 지지 확보를 위해 중국 지도부가 군사력 증강을 적극화 할 가능성도 있다.⁶⁶⁾

그러나 중국이 단기간내에 첨단무기를 갖춘 군사 강대국으로 도약하기에는 많은 制約要因이 있다. 첫째, 충분한 국방예산의 책정이 군사력 현대화의 필수조건이나, 중국이 軍事費를 대폭 증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비록 중국은 1989년 이래 국방예산을 매년 10% 이상 증액하여 왔으나, 중국의 국방비(1994년 약 55억달러)는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것으

65) “中國經濟の躍進是す世銀とIMFの報告,” 「世界週報」, 1993. 7. 20, pp. 69-73; Xin Dun, “China’s Economic Strength is Overestimated,” *Beijing Review*, June 14-20, 1993, pp. 9~10.

66) 「정권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라는 毛澤東의 주장처럼, 중국정치에서 군부의 역할은 막대하다. 특히, 權力承繼 과정에서 중국지도부는 군부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함으로써 人民解放軍의 생활수준 향상을 기하고 군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로 알려지고 있다.⁶⁷⁾ 최근 중국의 국방예산 증액은 물가상승율을 뒤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방예산 증액분의 대부분을 봉급체제 및 장비의 처우개선에 충당하여 왔다.⁶⁸⁾ 또한 중국은 「先경제, 後국방건설」 정책을 기본 국가정책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비에 과도한 예산을 할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둘째, 技術的 限界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앞서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중국군 장비는 대부분 1960년대 서방에서 사용하던 장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 중국 지도부는 군사과학·기술 수준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⁶⁹⁾ 구소련 해체이후 러시아의 군사전문가들이 대거 해외에 유출됨으로써 중국이 저렴한 비용으로 선진 무기·기술을 확보하기에 용이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67) 중국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국방예산은 한국의 國防費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지만, 중국의 실제 국방비 지출은 그 보다 약 세배 정도 많다고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군수산업의 민수품 생산에 의한 이익(전체 국방비의 약 30%에 상당)을 첨단 장비 구입과 병사의 복지 비용 등 국방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대외 군사원조, 무기 구입비 및 개발비, 군수공장 건설비 등을 과학기술이나 경제건설 항목에 편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ric Hyer, "China's Arms Merchants: profits in command," *China Quarterly*, no. 132(December 1992), p. 1111; Tai Ming Cheung, "serve the people and arms reduction," *Far East Economic Review*, October 13, 1993, pp. 64~68.

68) 李鵬, "政府工作報告," 「文匯報」(香港), 1994. 3. 21.

69) 「解放軍報」, 1991. 12. 9; 李鵬, "關於國民經濟和社會發展十年規劃和第八個五年計劃綱要的報告,"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十三大以來重要文獻選編」, 下卷(北京: 人民出版社, 1993), p. 1508.

는 점도 있으나, 낙후된 軍事技術 수준을 단기간내에 제고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항공모함과 공중급유기 개발·보유에 필요한 기술을 중국이 가까운 시일내에 갖추기 어렵다고 평가되고 있다.⁷⁰⁾

셋째, 중국의 對內外 政治的 要因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고 있다. 연안지역 地方政府 등 경제발전에 의해 혜택을 많이 받은 세력들이 군사력 증강보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선호하고 있고, 軍部 자체도 전투력 증강 보다는 民需品 생산을 통한 경제적 이익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⁷¹⁾ 또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야기할 수 있는 위협을 고려하여 중국에 대한 攻擊武器·技術 제공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점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70) 凌宇, 앞의 글, p. 31; Robert J. Skebo, Gregory K.S. Man, and George H. Stevens, 앞의 글, pp. 665~66.

71) 최근 중국의 군사비 증가의 원인이 鄧小平 사후 江澤民體制의 공고화를 위한 대내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즉, 중국은 군의 정치적 독립성 증대를 야기할 수 있는 군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군사예산을 증액하고 있다는 것이다. 朴斗福, “최근 中國 軍事費 增加의 國內政治的 意味,” 「主要國際問題分析」(1994. 4. 13), pp. 10~15.

第Ⅲ章 日本の軍事・安保戰略 變化와 軍事力 增強

1. 日本の軍事・安保戰略 變化

가. 日本의 安保秩序 및 威脅 認識

일본은 냉전종결과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로 러시아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은 감소하였지만, 미국의 개입능력 저하와 지역국가간 군비경쟁으로 인해 지역분쟁 위협은 오히려 증대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⁷²⁾ 특히 일본은 아·태지역 국가들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군사력 현대화 및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어 불안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이 냉전종결을 계기로 대폭적인 군비 감축 계획(Report on Bottom-up Review)을 추진하여 아·태지역에서 안보역할을 축소하고 있는 반면, 아·태지역에는 여전히 북방영토문제, 한반도문제, 남사군도문제 등 다양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잠재적 안보위협 세력인 러시아가 외형적으로는 노후장비 및 구형 무기를 감축하면서도 첨단무기로의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등 여전히 위협적인 수준의 극동군사력을

72) 防衛廳編, 「防衛白書」, 平成6年(1994)版, p. 3.

유지하고 있는 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러시아가 대외 무기 판매를 급속히 증대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비경쟁 및 지역분쟁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자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노동1, 2호」 미사일 개발을 급박한 안보위협으로 우려하고 있다.⁷³⁾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와 「노동 1, 2호」 등의 운반수단을 통해 일본열도 전체를 사정권하에 두고 있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은 북한 등 주변국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항하기 위하여 「전역미사일 방어」(Theater Missile Defense: TMD) 시스템 개발을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가 높은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고 인식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한·미와의 정치·안보적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이 중소평의 「4대 현대화」 노선에 따라 군대의 현대화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방계획을 종래의 「소극방위형」으로부터 「적극방위형」으로 전환하여 해외개입 능력을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73) 일본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사정거리 1000km의 북한 「노동1호」 지대지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력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방위청은 1994년 7월 15일 공표된 1994년판 「防衛白書」에서 러시아의 군사력보다 북한의 군사력을 최대의 위협요인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防衛廳編, 「防衛白書」, 平成6年(1994)版, pp. 47~58.

일본은 중국이 해외개입 능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증장기적으로 순항미사일, 항공모함, 공중급유기 등의 구입을 통해 원양함대 유지하기 위한 해군력 증강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남사군도에서의 중국해군 활동 강화로 인해 일본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중동지역과의 해상수송로 안전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구체적인 일본의 안보위협인식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러시아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 말 구소련이 일·소중립조약을 파기하고 북방영토를 점령하였던 역사적 맥락에서 러시아를 기본적으로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불신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러시아가 지난 수년간 극동군사력을 감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일본의 안보이익을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가) 러시아의 軍事力 現代化

1994년판 防衛白書에 의하면 일본은 러시아의 극동군사력이 1990년 이후 양적으로는 감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고, 1990년 11월 「유럽재래식무기 감축조약」(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CFE) 이후 유럽에서 감축된 군사력의 일부가 극동지역에 재배치됨

으로써 극동군 장비 현대화는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⁷⁴⁾

특히 이 防衛白書는 러시아의 극동군이 최근 재정상태 악화로 인해 활동이 약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구소련 전략미사일의 1/3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상군 약 24만명, 해상군사력 약 189만톤, 공군 작전기 1220기가 배치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⁷⁵⁾ 1994년 판 防衛白書에서 지적하고 있는 러시아 군사력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전력면에서는 대륙간탄도 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이나 전략폭격기가 시베리아 철도를 중심으로 주변에 배치되어 있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델타 III급 탄도미사일탑재원자력잠수함(SSBN)이 오호츠크해를 중심으로 한 해역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대륙간탄도탄에 대해서는 SS-25 등으로 근대화 되어 있고, 전략폭격기에 대해서도 사정거리 3000km의 순항미사일 AS-15를 탑재할 수 있는 현대식 TU-95H 형이 주력으로 되어 있다.

전술핵 군사력과 관련, 러시아는 1992년 11월 이후 해양배치 전술핵을 육상 보관소에 격납하였다고 밝혔으나, 백파이어기는 바이칼 호수 서쪽과 연해주지역에 약 125기가 배치되어 있고 AS-4나 AS-16 공대지(함) 미사일이 탑재가능하므로 극동지역의 지상목표나 일본의 해상수송로에 대한 높은

74) 防衛廳編, 「防衛白書」, 1994年版, p. 59.

75) 防衛廳編, 「防衛白書」, 1994年版, p. 59.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지상군사력 면에서 일본은 러시아가 1990년 이래 병력규모를 축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27개사단 24만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질적인 면에서 보면 러시아 극동군은 1990년에 처음으로 극동지역에 배치되기 시작한 신형 T-80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장갑차, 다연장 로켓트, 대구경대포, 무장헬리콥터 등 장비의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해상군사력 면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는 블라디보스톡과 페트로파브로프스크를 주요 거점으로 배치되어 있다. 태평양함대는 약 745척, 약 189만톤을 보유하고 있고 약 50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포함 약 70척의 잠수함도 보유하고 있다. 防衛白書에 따르면 태평양함대는 최근 2척의 항공모함을 퇴역시켜 양적으로 군사력을 감축하고 있지만 오스카-II급 순항미사일 탑재 원자력 잠수함의 회항이나 아크라급 원자력 공격형 잠수함의 건조를 계속함으로써 군사력 현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넷째, 공군력 면에서 극동공군력은 방공군, 공군, 해군의 작전기를 포함해서 총 1220기가 배치되어 있다. 공군기 수도 양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SU-25 나 MIG-29 등 제4세대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질적인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1994년판 일본 防衛白書의 평가는 러시아 극동군 활동수준이 감소되었다고 인정한 것 외에는 이전의 防衛

白書와 마찬가지로 일본주변에 배치된 러시아의 군사능력이 과도하게 높다는 일본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 北方4島 問題

북방4도문제는 제2차세계대전말 러시아가 일본으로부터 탈취한 지역으로 1992년에 외교적 해결에 실패함으로써 열린 대통령의 일본방문이 취소되기도 할 만큼 양국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문제이다.

일본은 러시아가 1978년 구소련시대부터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쿠나시리(國後), 에토로후(擇捉), 시코탄(色丹) 섬에 지상군을 배치한 이후 현재도 사단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이 지역에 전차, 장갑차, 각종 대포, 대공미사일이나 대지상 공격 헬리콥터 MI-24 하인드 등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⁷⁶⁾

1993년 10월 열린 대통령이 방일중 북방영토에 배치된 러시아군을 이미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였고 국경경비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병력의 절반에 해당하는 병력도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혔지만⁷⁷⁾ 현재 전투기부대의 철수 이외의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⁷⁸⁾

또한 일본은 러시아가 해상 및 항공전력 지원을 용이하게

76) 防衛廳編, 「防衛白書」, 1994年版, p. 65.

77) 「朝日新聞」, 1993. 10. 12.

78) 防衛廳編, 「防衛白書」, 1994年版, p. 65.

하기 위해 오호츠크해 등에 SSBN을 전개하여 왔으며, 북방 영토를 이러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오호츠크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북방 4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⁷⁹⁾

한편 일본은 러시아군이 일본주변해역에서의 군사활동 및 함정활동을 감축하고 있으며 일본 인접 지역에서의 대규모 지상군 연습을 자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대잠수함 훈련 및 미사일 발사훈련 그리고 정보수집을 위한 일본 근접비행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외에 일본은 러시아가 1993년 코지레프 외무장관의 베트남 방문을 통해 캄란만에 있어서의 군사시설을 베트남과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속 사용할 계획을 분명히 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⁸⁰⁾

(다) 러시아 國內 狀況 不安定 및 積極的 對아시아 進出政策

일본은 다음과 같은 러시아의 불안한 국내상황이 자국에 대한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첫째, 구소련 무기고에 대한 명령과 통제(command and

79) 防衛廳編, 「防衛白書」, 1994年版, p. 65.

80) 캄란항은 1979년 이래 구소련이 해 공군시설이나 통신시설을 사용하여 왔지만, 1989년 이후 캄란만 주둔 전투부대의 철수에 따라 현재는 약간의 보조함정이 주둔하고 있다. 防衛廳編, 「防衛白書」, 1994年版, p. 67.

control)의 신빙성, 둘째, 무기확산문제, 셋째, 옐친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전반적인 아시아 정책이다.

첫째, 명령과 통제(command-and-control) 문제와 관련, 일본의 군사전문가들은 소련 해체로 인하여 구소련군사력에 대한 통제체제가 약화되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즉 후계공화국들사이의 의견불일치는 러시아 군대내 사기와 권위의 붕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함께 구소련 군사력에 대한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⁸¹⁾

둘째, 무기 확산문제와 관련, 일본의 정책담당자들은 구소련의 재래식무기 판매의 급증에 대해 우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물질 및 핵 기술의 판매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러시아 정부가 외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제3세계에 핵물질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적인 규모로 핵확산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다.⁸²⁾

셋째, 옐친의 전반적인 아시아 정책에 대한 불신과 관련, 일본의 정책결정자들과 여론은 옐친의 중국에 대한 무기판매와 1992년 11월의 남한 방문 그리고 중국과 인도방문은 일본을 자극하기 위한 카드라고 인식하고 있다.⁸³⁾

일본은 이상과 같은 러시아의 국내상황이 안보불안요인으

81) 「産經新聞」, 1991. 12. 25.

82) 「日本經濟新聞」, 1992. 12. 31.

83) 「朝日新聞」, 1992. 11. 18; 「日本經濟新聞」, 1992. 12. 21.

로 발전될 것을 우려하여 사태진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2) 韓半島 不安定과 北韓의 核開發

일본은 남북한의 대결상태가 일본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대규모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냉전종결이후 한반도에도 몇가지 괄목할 만한 발전이 일어났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동아시아 안보에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이 100만명의 현역군인과 12시간내에 500만명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무기를 현대화하고 있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오판하여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특히 1994년판 防衛白書에 따르면 “한반도에 있어서 한국과 북한을 포함 150만명이 넘는 지상군이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군사적 구조는 냉전이후시대에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다.⁸⁴⁾ 또한 일본 방위청은 사정거리 1000km의 북한 「노동1호」 지대지 미사일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군사력증강이 극동지역의 중요한 군사적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본은 1993년 5월 29일 실시된 북한의 「노동1호」 발사 실험 성공을 계기로 도쿄를 포함한 일본關東 지방이 북한

84) 防衛廳編, 「防衛白書」, 1994年版, p. 51.

「노동1호」의 사정권내에 들었다 보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⁸⁵⁾

또한 일본은 북한이 1993년 3월 NPT 탈퇴를 결정하고 IAEA 사찰을 거부한 것은 일본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으며 국제적 고립으로 절망에 빠진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일본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비록 북한이 현재 NPT 탈퇴를 정지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북한에 대한 일본의 위협인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은 대남한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안정적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우호관계를 제약하는 경쟁적 또는 갈등적 측면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의 외교분석가들은 한국이 1990년과 1992년 각각 소련 및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북한과도 경제관계를 증대시킨 외교적 성과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동기에서 추진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⁸⁶⁾ 일본은 남한과의 경쟁의식과 함께 통일한국 등장을 염두에 둔 군사력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

85) 1994년판 일본방위백서는 “북한이 노동1호미사일을 실전배치하는 경우 배치위치로부터 일본의 대부분이 노동 1호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개발이 결합하면 더 한층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불안정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防衛廳編, 「防衛白書」, 1994年版, pp. 55~56.

86) *Far Eastern Economic Review*, September 3, 1992.

어⁸⁷⁾ 거대한 통일한국의 등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中國

(가) 軍事力 增強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증강을 안보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국이 영토분쟁에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이와 같은 중국의 적극적인 세력확장을 냉전이 후시대 아시아에서 지역 패권을 추구하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⁸⁸⁾

특히 일본은 중국이 국방비를 매년 12%씩 5년 연속 증강해 왔고 1994년도에는 22%의 대폭적인 신장율을 보이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연구개발 및 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해외로부터 선진 기술과 현대화된 무기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자국의 해상수송로 방위의 견지에서 중국이 해공군의 현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⁸⁹⁾

이와 관련, 일본은 중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Varyag급 항

87) 「讀賣新聞」, 1993.5. 8; 1993. 12. 8.

88) Michael Klare, "The Next Great Arms Race," *Foreign Affairs*(Summer 1993), pp. 141~43.

89) 防衛廳編, 「防衛白書」, 1994年版, p. 69.

공모함을 구입할지 모른다는 보고에 대해 더욱 경계심을 느끼고 있다.

비록 이 항공모함 구입계획은 가격과 중국의 충분한 보조장비의 획득능력에 대한 양측간 이견으로 인해 정지된 상태이지만 중국의 원양 해군력의 투입능력 보유 전망은 일본의 외교정책 담당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또한 일본은 이와같은 중국의 해외투사 능력 제고 노력과 함께 공군면에서 F-8 II 등의 신형전투기 개발과 러시아로부터 MIG-31 요격기 및 60대의 SU-27전투기(전투반경 1500km) 도입 등을 통한 공군기 현대화 노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⁹⁰⁾

일본은 중국의 대폭적인 공군기 증강이 중국의 해외 장거리 공격능력을 강화할 것이며, 나아가 일본영토 및 일본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는 해상수송로를 위협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90) 일본은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이미 1000명의 기술자를 받아들여 무기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호이 27 전투기 26대(약10억 달러 상당), 이류신 76 수송기 6대, S-300미사일 샘플 등 대량의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구입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Gerald Segal, "The Coming Confront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World Policy Journal*, Vol. X, no. 2(Summer 1993), pp. 28~31; Bin Yu, "Sino-Russian Military Relations: Implications for Asian-Pacific Security," *Asian Survey*, Vol. XXXIII, no. 3, pp. 305~09.

(나) 남지나해에서의 地域霸權 追求

일본은 중국의 일반적인 방위 필요를 넘는 군사력 증강을 중국이 더 거대한 전략적인 구상을 갖고 있는 증거라고 인식하고 있다. 즉 일본은 중국이 남지나해를 모두 중국해로 전환하여 이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려 하고 있으며 냉전종결로 형성된 세력공백을 메우려는 전략구상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이 해공군력 증강과 함께 태평양의 영토분쟁을 무력이나 무력위협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중국이 지역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증거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92년 2월 영해법을 선포하였는데, 이 법에서 중국은 남지나해의 南沙群島와 西沙群島에 대한 오랜 영유권 주장을 법제화하였고 일본이 자신의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尖閣)열도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법제화하였다.

비록 일본은 남사군도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의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군사력에 의해 영토요구를 옹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일본 경제에 치명적 중요성을 지닌 해상수송로 지역에서 위험한 해양 패권세력으로 부상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남지나해를 통해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 지역에서의 군사력 증강은 일본에게 잠재적으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⁹¹⁾

(다) 센카쿠(尖閣, 釣魚臺) 문제

센카쿠(尖閣) 열도 문제는 일본에게 더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의 1891년 무인도에 대한 주권 선언은 중국이 1992년 영해법을 채택할 때까지 도전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영해법은 센카쿠 열도를 중국영해의 일부분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 ‘침략자들’을 격퇴할 고유의 권한이 있음을 원색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냉전이후시대의 중·일관계를 위협하게 하였다.⁹²⁾

또한 일본은 중국이 연안 해역을 굴착하기 위해 해외석유 탐사 회사와의 계약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일본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주권 주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영토분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결국 일본의 중국에 대한 우려는 중국이 태평양 해역에서 그들의 영토에 대한 확대해석을 주장하려 하고 아·태지역에서 그들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 해공군력을 증강함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였다.

91) Masashi Nishihara, "Japan Has Cause to Worry About Chinese Ambition,"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12, 1994.

92) 「日本經濟新聞」, 1992. 2. 29.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영토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일본은 일본의 대중국 엔 차관이 군사력 증강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⁹³⁾

이상과 같은 일본의 안보 위협인식과 함께 일본은 냉전이 후시대 미국의 상대적인 안보역할 축소에 따라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미국 및 국제사회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 및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치·경제면에서 뿐만 아니라 안보면에서 국제적 역할을 증대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걸프전 당시 130억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공헌을 거부한 데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받았던 사실을 뼈 아픈 경험으로 인식하고 국제적 역할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보수주의 양당제로의 정계재편 및 법적 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1992년 평화유지활동협력법안 통과, 1993 1994년의 유엔에 의한 보편적 안전보장 개념 도입 및 헌법개정 논의 활성화).

결국 냉전이후시대 일본은 미국의 적극적 개입 의지 약화와 지역국가간 군비경쟁으로 인해 안보상의 불안 요인이 증대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일본의 안보역할

93) 1992년 10월 아키히토 천황의 중국 방문은 주변국들로부터 지역 강대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전략적 목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인들에게는 반일감정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인들에게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패권추구적 영토요구를 우려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産經新聞」, 1992. 10. 2; *The New York Times*, 1992. 10. 24.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군사력 증강 및 국제적 역할증대를 통한 미·일동맹관계 유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日本의 軍事·安保戰略

일본의 군사·안보전략 목표는 아시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軍事的 役割을 分擔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일본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미·일 합동작전 수행 능력 유지 및 주일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통해 미·일동맹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군사력 현대화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 그리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추구 및 대외원조의 전략적 이용 등을 통해 정치·군사대국으로서의 독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1) 「專守防衛」戰略의 「地域防衛」戰略으로의 轉換

일본은 명목적으로 일본본토와 近海 방위를 목표로 하는 「專守防衛」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위대의 해상활동을 남지나해에 이르는 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자국의 1000해리 해상수송로 주변 지역에 대한 방위를 목표로 하는 「지역방위」 전략으로 확대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⁹⁴⁾

일본은 1990년대 후반까지 일본열도 근해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북서태평양으로부터 남쪽의 대만 및 동남쪽의 유타도에 이르기까지의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해군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까지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해상교통로의 보호 능력 및 서태평양 전역에 대한 통제 능력 보유를 목표로 군사력 현대화 및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1976년 이후 18년만에 「방위계획 대강」을 1994년 후반까지 새로이 작성·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규모의 현대화된 군대를 보유하기 위한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 獨自的 防衛力 確保

일본은 독자적인 해상수송로 방위 능력 확보를 목표로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중이며, 장기적으로 항공모함 도입 등을 통한 해외 장거리 개입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안보역할을 축소하려 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일본 해상수송로의 안전을 독자적으로

94) 일본의 「專守防衛」로부터 「地域防衛」로의 전환은 1981년 종전 200해리(일본본토 서남해역) 해상방위로부터 탈피하여 “1,000해리 해상수송로방위”를 선언한 스즈키(鈴木) 수상에 의해 처음제기되었다. 이후 나카소네(中曾根)수상은 1982년 1,000 해리 해상수송로의 범위를 팜-도쿄, 대만해협-오오사카로 명시하였고 1983년 일본주변의 3해협(소야, 쓰가루, 쓰시마 해협) 봉쇄를 단행하였다. 민족통일연구원편, 「소련의 동북아정책 변화와 동북아질서 재편」(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pp. 198~99.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자위대의 해상활동을 남지나해에 이르는 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식적인 「專守防衛」 표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地域防衛」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1991년 1월 이후 필리핀으로부터 일본 항공자위대 공군기가 필리핀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받는 등 클라크 미군기지에서부터 태평양에 있는 영국기지를 통해 카이로에 이르는 군사항공로와 싱가포르-스리랑카-오만-카이로에 이르는 군사항공로를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최근 필리핀 기지로부터의 미군의 철수와 함께 일본의 방위영역이 1,000해리 지역방위 이상 지역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⁹⁵⁾

(3) 政治·軍事的 役割增大

냉전종결 이후 미국은 냉전이후시대 다원적 질서 속에서 자국의 국내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독자적인 리더십 발휘에 한계를 느끼고 일본에게 「世界的 同伴者 關係」 구축을 위한 政治 安保的 役割 分擔을 요구하고 있다.⁹⁶⁾ 이에 따라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 정치·안보적 역할을 증대하지 않을 수 없다

95) Jung-Suk Youn, "US and Japanese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1990s,"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VI, no. 2(Summer 1992), p. 375.

96) Robert Hormats, "Roots of American Power," *Foreign Affairs*, Vol. 70, no. 3(Summer 1991), pp. 132~49.

고 인식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地域強國으로서의 영향력과 지위를 확보해 나가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아시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政治 軍事的 役割을 分擔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주일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통해 미·일동맹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군사력 현대화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⁹⁷⁾ 그리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추구 및 대의원조의 전략적 이용 등을 통해 정치·군사대국으로서의 독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일본은 냉전이후시대 미·일 간 세계적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미국의 對日 역할증대 요구에 따라 동북아지역에서 정치·안보적 역할분담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치·군사적 역할을 증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지역분쟁 등 지역불안 요인 억제를 위한 국제적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국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

97) 일본은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유엔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캄보디아 평화유지활동에 자위대를 파견한데 이어(1992. 10. 14), 모잠비크 평화유지활동에 일본의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1993. 3. 26). 일본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획득을 위한 실적을 쌓아 나가려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을 증대하려 하고 있다.⁹⁸⁾

한편 일본은 국제문제에 대한 정치·안보적 역할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해외파병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보수화로의 정계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국제분쟁에서 일본의 역할증대 요구가 국제무대에서 증대함에 따라 국내적으로 헌법을 확대 해석하여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허용하는 「유엔평화유지활동법안」을 통과시켰으며(1992. 6. 15), 또한 자위대의 해외파병 합법화를 위한 헌법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이미 1992년 3월 10일에 해외의 재해 지역 또는 분쟁지역에서 일본국민이 위협에 처하는 경우 항공자위대원과 자위대 항공기를 파견하여 구출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1993. 6. 3).⁹⁹⁾ 이들 3개 입법조치들은 일본군사력의 해외파견을 제도화한 것으로 자위대 역사상 획기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은 국내적으로 「보통국가」를 내세워 정치·군사적 대국화를 지향하기 위한 新保守主義的 政界再編을 진행

98) 일본의 총리자문기구인 「방위문제간담회」도 일본이 자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유엔의 기치아래 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朝日新聞」, 1994. 7. 19.

99) 「朝日新聞」, 1993. 6. 4.

시키고 있으며, 북한핵문제 미해결로 인한 한반도 긴장을 구실로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有事立法」 논쟁을 유발시킴으로써 지역분쟁에 대한 일본의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헌법의 확대해석 및 헌법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하타 前연립내각을 주도했던 新生黨은 「보통국가론」을 내세워 국제적 역할증대 및 유엔상임이사국 지위획득을 적극 모색하였으며, 북한핵문제를 계기로 「유엔에 의한 보편적 안전보장」 개념 도입 및 「有事立法」을 추진함으로써 평화헌법을 확대 해석하려 하거나, 개헌논의까지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다.¹⁰⁰⁾

결국 일본은 향후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지역에서 정치·안보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증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100)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계재편 방향으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은 1994년 1월 29일 채택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선거제도에 따라 선거를 치루어 나가면서 保守主義 兩黨制로의 회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은 「보통국가」 지향을 구실로 政治大國化 노선을 다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讀賣新聞」, 1994. 4. 24; 「朝日新聞」, 1994. 5. 11.

2. 日本의 軍事力 增強 展望

가. 在來式 軍事力

일본은 냉전체제하에서 미국의 요청에 따라 꾸준히 군사력을 증강하여 왔으며, 특히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실시된 「中期防衛力整備計劃」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소련 다음가는 제3위의 재래식 군사력을 갖게 되었다. 또한 1990년을 전후하여 미소를 중심으로 전세계가 급속한 군비를 축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1991~1995년에 수행할 「新中期防衛力整備計劃」을 작성하여, 매년 약 350억 달러가 소요되는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 350억 달러의 군사비는 동남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모든 나라들의 국방예산 총액과 비슷한 액수이다.

일본의 군사력 수준은 주변아시아 각국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첨단 민간·군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군사적 잠재능력은 일본이 앞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아·태지역에 배치된 군사력만을 비교하면, 일본군사력은 미국군사력의 약 1.5배에 달해 일본은 아·태지역 최대의 군사강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지역에서 정치·안보적 역할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일본은 「56중기업무계획(1983~1987)」 및 「제1차 中期防衛力整備計劃」(1986~

1990)」을 통해 1,000해리 해상수송로 방위 등 지역적 군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해 왔고, 「제2차 新中期防衛力整備計劃(1991~1995)」(총22조 7천5백억 엔)을 수립하여 전진방어를 위한 능력 제고를 중심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국방비는 1990년 GNP의 약 1%를 상정할 때 약 400억달러가 되며, 2000년에는 600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국방비의 약 25%를 전력증강을 위한 무기구입에 투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제2차 新中期防衛力整備計劃」에 따라 일본은 주변해역의 방위능력과 해상교통로의 보호를 위한 신예호위함과 잠수함 건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제2차 新中期防衛力整備計劃」에 따른 주요장비의 도입계획과 수정된 계획 그리고 1993년 까지의 진척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⁰¹⁾

101) 일본은 세계적인 군축추세에 명목상 부응하기 위해 1992년 12월 18일 「제2차 신증기방위력정비계획」의 경비총액을 1993년 이후 3년간(1993년 1995년) 5천8백억엔 정도 삭감한 22조천 7백억엔(1990년도 가격)으로 신증기방위력정비계획의 일부내용을 축소 조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제2차신증기방위력정비계획」 총액(22조7천5백억엔)의 2.5%를 감축한 것에 불과한 액수이며, 일본은 이러한 계획 수정에도 불구하고 금후 년평균 2.1%씩 군비확장을 지속할 계획이다. 前田壽夫, “「軍事大國・日本」九三年度防衛豫算,” 「軍縮問題資料」, No. 151(1993. 6), pp. 64~66.

〈표 2〉 中期防수정에 의한 主要裝備와 經費의 감축 및 達成狀況

		當初計畫	수정 후 계획	削減數 (額)	91+92+93年度 發注數	達成率 (%)	單價 (億円)
陸上 自衛隊	戰車	132兩	108兩	24兩	26+20+20兩	61.1	9.4
	火砲	716門	536門	180門	33+129+129門	54.3	...
	新多連裝로켓트 시스템	36兩	36兩	0兩	0+9+9兩	50.0	21.5
	裝甲車	218兩	193兩	25兩	2+34+34兩	57.0	...
	地對艦誘導彈	40基	40基	0基	8+8+8基	60.0	15.0
	對戰車헬리콥터	20機	18機	2機	6+4+2機	66.7	27.8
	輸送헬리콥터	14機	12機	2機	3+3+2機	66.7	59.3
海上 自衛隊	護衛艦	10隻	8隻	2隻	2+1+1隻	50.0	이지스함 1,148.7
	潛水艦	5隻	5隻	0隻	1+1+1隻	60.0	521.9
	對潛哨械機P3C	8機	5機	3機	2+1+1機	80.0	136.4
	對艦헬리콥터	36機	31機	5機	5+7+4機	51.6	57.3
	掃海헬리콥터	1機	1機	0機	1+0+0機	100.0	...
航空 自衛隊	戰鬥機F15	42機	29機	13機	8+7+4機	65.5	136.9
	輸送機C130	3機	1機	2機	0+0+0機	0.0	...
	輸送헬리콥터	2機	2機	0機	1+0+0機	50.0	...
	空中早期警報機 AWACS	4機	4機	0機	0+0+2機	50.0	569.8
	中等練習機	90機	68機	22機	21+19+9機	72.1	26.3
經費	방위비총액	22조7,500억엔 (연평균 3.0%증)	22조1,700억엔 (연평균 2.1%증)	5,800억엔	[19+20+20%]	총합 59.0	136.9
	전투장비계약액	5조엔	4조4,400억엔	5,600억엔	[20+19+20%]	총합 59.0	...

注: 經費는 90年度價格, []은 年度別達成率, 單價는 93年度豫算 計上價格

출처: 前田壽夫, “「軍事大國 日本」九三年度防衛豫算,” 「軍縮問題資料」, No. 151(1993. 6), p. 69.

장비 현대화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육상자위대는 전투 장비의 현대화에 의해 對海上, 對地, 對空, 對戰車火力, 장갑 기동타격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88식 지대함 유도탄의 정비에 의한 대해상 화력 강화, 155mm 砲인 FH 70이나 신다연장 로켓트 시스템 등을 정비함으로써 대지화력 강화, 90식 전차 등의 정비에 의한 장갑기동 타격력의 강화, 개량 호크의 개선 등에 의한 대공화력 강화, 대전차 헬리콥터(AH-1S)나 대전차유도탄발사장치의 정비에 의한 대전차 화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¹⁰²⁾

육상자위대는 해상 및 해안의 적합성에 대한 핵심적인 대응무기로 1988년부터 SSM-1 지대함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육상자위대는 항공 및 해상자위대 처럼 戰場을 국토 밖에서 유지하려고 하는 해상·연안격파전략(洋上·水際 擊破戰略)에 따라 이 연안방위용 순항미사일을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新中期防衛力整備計劃」에 따라 40기의 SSM-1 지대함 미사일을 추가 조달하여 1995년까지 78기의 지대함 미사일을 보유할 예정이다.¹⁰³⁾

또한 육상자위대는 사정거리가 짧은 자위대 주력포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육상자위대 포병의 주력야포는 北部方面隊 사단이 보유한 75식 155mm 자주 榴彈砲와

102) 軍事情報研究會, “日本にふさわしい陸戰兵器,” 「軍事研究」, 第二八卷 第二號(1993년 2月號), pp. 73~79.

103) 軍事情報研究會, “日本にふさわしい陸戰兵器,” pp. 62~68.

여타 사단이 보유한 FH70 155mm 榴彈砲 및 M2A 105mm 榴彈砲이다. 그러나 FH70이외에는 이미 구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 교체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육상자위대는 155mm 榴彈砲 FH70을 26문 도입한데 이어 1994년도에도 24문 증강배치할 계획으로 있다.¹⁰⁴⁾ 또한 육상자위대는 제3세대 탱크인 90식 탱크를 1990년에 30량을 실전배치한 이후 1993년도에 20대 실전배치하였고, 1994년도에 20대 도입할 계획이다.¹⁰⁵⁾

해상자위대는 자동화된 호위함 정비를 통한 호위함군의 현대화 및 대잠초계기(P-3C)나 대잠헬리콥터(SH-60J)의 정비에 의한 대잠수함 작전 능력 강화, 그리고 소해정이나 소해모함의 정비에 의한 대기뢰전 능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¹⁰⁶⁾ 일본 해상자위대는 호위함, 잠수함, 대잠초계기, P3C 등에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최초의 초현대식 이지스급 구축함이 1993년 3월 취역하였다.¹⁰⁷⁾ 일본해상자위대는 1995년과 1996년에 연차적으로 이지스(AEGIS)함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지스함을 일본해상자위대의 차세대 주력함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 이지스함은 해상자위대의 방공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함정으로서 장차 일본의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작전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미

104) 軍事情報研究會, “日本にふさわしい陸戦兵器,” pp. 68~69.

105) 防衛廳編, 「防衛白書」, 1994年版, p. 328.

106) 防衛廳編, 「防衛白書」, 1994年版, p. 121.

107) 中山一富, “海上防衛力に大穴があく,” 「軍事研究」, 第二十八卷 第三號 (1993年 3月號), pp. 66~77.

사일 호위함이다.

항공자위대는 요격전투기(F-15) 및 공중조기경보기(AWACS, E-767) 도입,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엇의 성능 제고 등을 통한 방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구난수색기(U-125A)나 구난 헬리콥터(UH-60J)의 정비, 중등연습기(T-4)의 정비, 수송기, 구난기 등 기본조종 연습기(T-400)의 정비에 의한 구난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¹⁰⁸⁾

항공자위대는 공중조기경보기(E-767) 4대를 95년까지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며, 전술항공기의 작전반경을 연장할 수 있는 공중급유기의 도입도 계획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장거리 해상수송로 방위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¹⁰⁹⁾

또한 항공자위대는 미국과 공동으로 차세대 전투기 FSX 개발에 들어갔으며 이것이 완성되면 일본은 기존의 F-15나 F-16 보다 월등한 전투기를 보유하게 된다. F-15나 F-16은 선회반경이 5000 미터인 반면, FSX는 그 1/3인 1600 미터이다. 또한 FSX는 비행경로를 바꾸지 않고서도 자유자재로 고도와 기수방향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조작 능력이 향상된 전투기이다. FSX에 장착되는 레이더(Active Phased Array 식)는 기존의 레이더와는 달리 전방위에서 복수의 목표물을

108) 長沼恵二, “航空自衛隊の最新戦力: 21世紀の主力装備,” 「軍事研究」, 第二十八卷 第四號(1993年 4月號), pp. 28~31.

109) 青木謙知, “E-767 AWACS,” 「軍事研究」, 第二十八卷 第四號(1993年 4月號), pp. 34~45.

동시에 탐색할 수 있는 첨단기술 레이더이다.

이와 같이 일본자위대 특히 항공 및 해상자위대는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자국의 해상수송로 주변 지역에 대한 방위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해상수송로에 대한 독자적인 방위력 확보를 목표로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994년도에 일본자위대가 추진하고 있는 장비도입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3〉 1994년 현재 일본 자위대 군사력 현황

	自衛官定數		18万人
陸 上 自衛隊	基幹部隊	平時地域配置 部隊	12個師團 2個混成團
		機動運用部隊	1個機甲師團 1個特科團 1個空挺團 1個教導團 1個헬리콥터團
		低空域防空用地對空誘導彈部隊	8個高射特料群
	海 上 自衛隊	基幹部隊	對潛水艦艇部隊 (機動運用)
對潛水艦艇部隊 (地方隊)			10個隊
潛水艦部隊			6個隊
掃海部隊			2個掃海隊群
陸上對潛機部隊		16個隊	
主要裝備	對潛水上艦艇	約60隻	
	潛水艦	16隻	
	作戰用航空機	約220機	

航空 自衛隊	基幹部隊	航空警戒管制部隊	28個警戒群
		要撃戦闘機部隊	10個飛行隊
支援戦闘機部隊		3個飛行隊	
航空偵察部隊		1個飛行隊	
航空輸送部隊		3個飛行隊	
警戒飛行部隊		1個飛行隊	
		高空域防空用地對空誘導彈部隊	6個飛行隊
	主要裝備	作戰用航空機	約430機

출처: 防衛廳編, 「防衛白書」, 1994年版, p. 312.

이와 같은 일본자위대의 군사력 증강 및 현대화 추세는 일본이 1976년 당시 상정한 전수방위를 위해 설정한 최소한도의 군사력 수준을 월등히 능가하는 규모이다. 이를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防衛大綱」과 「中期防」의 豫想 戰力比較

裝備의 種類	保有數	「大綱」 特定時 (1976년)	「中期防」(1991~95)完成時	
			當初計劃	92年末의 修正後
陸上自衛隊				
戰車		760兩	1,136兩	1,112兩
裝甲車		680兩	1,082兩	1,057兩
地對艦 미사일(射程 150)		0基	78基	78基
新多連裝 로켓트 (各 12發裝備)		0兩	36兩	36兩
對戰車헬리콥터		0機	88機	86兩
海上自衛隊				
艦艇총수		19.2万톤	32.8万톤	
이지스艦(7,200)		0隻	4隻	4隻
P2J 對潛哨戒機		67機	0機	0機

P3C 對潛哨戒機 (性能은 P2J의 約 10倍)	0機	100機	97機
航空自衛隊			
F104 戰鬥機(마하 2이하)	174機	0機	0機
F4 戰鬥機(마하 2.2)	88機		약 75機
F15 戰鬥機(마하 2.5)	0機	204機	191機
空中警戒管制機 AWACS	0機	4機	4機

출처: 前田壽夫, “「大綱見直し」問題をめぐって,” 「軍縮問題資料」, No. 163(1994. 6), p. 63.

戰車 및 장갑차의 경우 「新中期防衛力整備計劃」이 끝나는 1995년에는 1976년 「防衛大綱」 제정시의 계획보다 350여대 및 370여대가 각각 초과될 예정이며, 이지스함이 4척 초과될 것이다. 또한 P3C 대잠초계기의 경우 「防衛大綱」에서는 P2J를 67기 도입하기로 하였던 반면, 「新中期防衛力整備計劃」에서는 성능이 보다 우수한 P3C를 97기 도입하기로 하는 등 증강폭을 확대하였다.

항공자위대의 전투기에 있어서도 F 15기를 191기 도입하기로 하였고 공중조기경보기 AWACS 4기를 도입하기로 계획하는 등 「防衛大綱」보다 대폭적으로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¹¹⁰⁾

「新中期防衛力整備計劃」은 현재 부분적인 축소를 위한 수정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투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기

110) 前田壽夫, “「大綱見直し」問題をめぐって,” 「軍縮問題資料」, No. 163 (1994. 6), pp. 60~67.

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일본은 냉전종식이라는 국제 사회의 상황변화에 발맞추어 방위체제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위구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소카와 수상에 지시에 따라 사적자문기구인 「防衛問題懇談會」가 「防衛計劃大綱」(또는 「防衛大綱」)을 재검토하여 1994년 말까지 그 대강 수정을 마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최근 「防衛問題懇談會」가 「防衛大綱」에 대한 중간 검토결과를 발표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지속적인 군사력 현대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¹¹¹⁾

주요내용은 첫째, 필요최소한도의 방위력 정비 기준이 되고 있는 기반적 방위력 수준은 불변, 둘째, 해,공 자위대의 전투장비는 현수준 유지, 셋째, 육상자위대의 현정원(18만명) 충원율을 고려, 15만명 체제 유지, 넷째, 유사시 방위력 증강을 위한 예비자위관제도 확립, 다섯째, 불안정요인의 조기포착을 위한 정보수집 능력 강화, 여섯째, 즉응태세 완비를 위한 기동력, 수송력 강화, 일곱째, 북한, 중국의 미사일에 대응 가능한 TMD 구상, 여덟째, 자위대의 원활한 국제공헌 활동을 보장하는 PKO 여건 정비 등이다.

신「防衛大綱」은 선진국의 군비억제 경향, 국내의 정권교체 그리고 재정사정 등 국내의 요인을 고려하여 외형적인 축소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일본을 21세기의 새

111) 「朝日新聞」(夕刊), 1994. 8. 12.

로운 군사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군사현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방위구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核 潛 在 力

일본은 1992년 11월 프랑스로부터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반입한 데 이어 1993년 4월 28일 아오모리 현 롯카쇼무라(六ヶ所村)에 세계 최대의 핵연료재처리공장을 착공하였고, 1994년 4월 5일에는 후쿠이(福井)縣 쓰루가(敦賀)市の 고속 증식로 원형로 「몬주」를 시험가동시켰다.¹¹²⁾ 이에 따라 일본은 핵무기 전환이 가능한 다량의 플루토늄을 보유 사용하는 핵에너지 이용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일본은 핵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석유의존도를 낮춘다는 명목으로 2010년까지 85톤의 플루토늄을 생산, 이용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며, 이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플루토늄을 대량 반입하고, 대규모 핵연료 재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일본은 플루토늄 이용정책에 따라 수십톤의 플루토늄을 생산, 비축할 수 있는 농축,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게 될 것이며, 수천개의 핵탄두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자국이 비핵3원칙(보유·제조·반입 금지)을 견지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성실히 받고 있다

112) 鈴木篤之, “日本原子力政策とプルトニウム問題,” 「國際問題」, no. 397 (1993년 4월), pp. 43~53; 「朝日新聞(夕刊)」, 1994. 4. 5.

는 점을 내세워 핵무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핵에너지 이용 계획은 환경오염 등 안전성의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면 손쉽게 핵폭탄 제조용으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핵잠재력 측면에서 주변국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¹¹³⁾

일본은 자국의 핵개발 목적이 오직 평화적인 핵에너지의 이용을 위한 것임을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으나, 사실상 핵무장에 필요한 거의 모든 물자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준핵보유국 상태이며 단시일내에 대대적인 핵무장을 실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다. 일본의 군산복합체는 인공지능 컴퓨터, 신소재, 전기전자, 우주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무기의 운반수단과 戰域監視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특히 일본의 통신위성 개발은 상업용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위성발사에 이용되는 로켓은 미사일로의 전용이 가능한

113) 일본원자력위원회는 일본의 플루토늄 이용 계획이 핵확산으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는 국내외 여론을 撫摩하기 위해 1994년 5월 18일 잉여 플루토늄을 갖지 않는 플루토늄 수급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개발이용장기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 일본은 고속중식로를 장래 원자력발전의 주력으로 삼고 2020~2030년경 실용화하기로 했던 1987년의 장기 계획안을 2030년경으로 다소 연기하였고, 2000년에 연간 3000톤 규모로 계획했던 우라늄 농축 규모도 1500톤 정도로 축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북한핵문제를 계기로 일본핵개발에 대한 외국의 의혹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며 플루토늄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朝日新聞」, 1994. 6. 14; 1994. 6. 27; 1994. 7. 3.

것이다. 또한 핵탄두와 격발장치를 운반수단에 장착하는 기술도 일본의 기술수준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기술은 핵무기 개발의 핵심적인 기술로서, 일본의 플루토늄 생산능력 확보는 곧 핵무기 개발 잠재력의 확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잠재력과 일본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일본은 정책결정만 내려지면 2년내에 수십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고, GNP의 5%정도를 핵개발에 투입하면 10년내에 전략핵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¹¹⁴⁾

결국 일본은 자신의 첨단과학기술, 군사기술, 경제력을 결합시켜 핵무기 개발 직전단계까지의 모든 분야의 핵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핵잠재력을 계속 축적하고, 정책결정자들의 정치 안보적 판단에 따라 필요시 이를 단시일내에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핵 옵션(option)」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핵잠재력 보유를 계기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전망해 볼 때, 일본은 일본 경제의 높은 해외 의존도와 국내적인 반핵분위기로 인해 단기적으로 핵무장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은 미·소대결의 냉전이 와해된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세

114) 이유헌, 「일본의 핵정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51.

력이 약화된 틈을 이용해 아시아에서 군사·안보적 역할증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방위력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의 핵무장을 억제하고 있는 미 일동맹 약화 등 일본 안보상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올 경우 일본은 중 러로부터의 핵위협이라는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워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노동1호 개발 등 자국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안보위협을 구실로 핵무장을 정당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핵무기 재료인 플루토늄을 대량 보유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이를 핵무기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은 최근 핵재처리시설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플루토늄의 대량수입 계획을 실행, 착수함으로써 아시아 주변 각국으로부터 핵무장 준비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다. TMD 參與 및 尖端 軍事科學技術 開發

일본은 북한의 「노동1호」 미사일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 지상·해상·공중에서 입체적인 방어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전역미사일방어」(TMD) 체제를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최저 44억달러에서 152억달러에 이르는 4가지 선택안을 놓고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¹¹⁵⁾

첫째 대안은 북한의 「노동1호」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인 바, ① 36기의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최신예 구축함 이지스(Aegis)함 2척을 동해상에 배치하고, ② 24개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를 일본전역에 포진시키며, ③ 적외선 감지기를 장착한 E767 공중조기경보기(AWACS)를 배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2004년까지 44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둘째 대안은 북한의 노동1호와 중국제 CSS2 및 CSS5 탄도미사일에 공동 대처하는 대안인 바, ① 6척의 이지스함 동해 배치, ② 4대의 AWACS기와 24개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 ③ 도쿄남서쪽에 첨단 정찰 레이더 기지 건설 등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실전배치를 목표로 152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대안은 북한의 노동1호 미사일과 중국의 CSS2, CSS5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인 바, ① 全域高空地域防禦미사일(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THAADM) 기지 6곳 건설, ②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 24개 포진, ③ 1기의 E767 AWACS 투입과 1개 레이더 기지 건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87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15) *Defense News*, August 29-September 4, 1994, p. 4.

넷째 대안은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요격하기 위한 계획인 바, ① 전역고공방어미사일(THAADM)과 ② 두 개의 이지스함, ③ 24개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이 전역미사일방어체제를 미국과 공동개발하기로 한 것은 일본이 지역안보면에서 미국과 역할을 분담하고 증대한다는 측면에서 주변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¹¹⁶⁾

한편, 일본은 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통해 무기개발 기술 축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은 높은 기술수준의 방위산업과 민수산업의 기반위에서 앞으로 더욱 더 고도의 기술군으로 발전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¹¹⁷⁾

최근 일본은 1988년부터 미국과 공동개발중인 차세대 지원전투기를 1995년 여름에 최초비행(이미 1992년 6월에 실물크기 모형공개), 1998년에 개발 완료 실전배치할 예정으로 적극 추진하는 한편, 개량 호크 미사일의 후계무기로서 「신종SAM」 차기 중거리 지공 미사일의 개발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현재 일본이 개발중인 장비는 차세대 지원전투기 FSX, 원격조정관측장치, 함재용 신사격 지휘장치, 초고속 대잠수함 어뢰, 투기형 전파방지 장치 등이다. 이들 장비

116) 豊田利幸, “戰域ミサイル防衛(TMD)とは何か,” 「軍縮問題資料」, No. 159(1994年 2月號), pp. 14~21.

117) Andrew K. Hanami, “The Emerging Military-Industrial Relationship in Japan and the US Connection,” *Asian Survey*, Vol. XXXIII, no. 6(June 1993), pp. 594~96.

는 성능이 매우 우수한 장비로서, 이들 장비가 실전 배치될 경우 그들 무기, 장비를 무적의 성능으로 격상시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밖에 현재 일본이 개발중인 장비는 거의 모든 첨단기술을 이용한 고성능 장비이며, 특히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최고의 기술인 카본화이버, 세라믹, 반도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장비이다.

일본은 연구개발에 GNP 대비 약 3%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 제1위의 투자율이다. 따라서 일본이 현재 다소 취약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이론분야에서도 머지않아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최고수준의 과학기술은 그들의 군사력을 최고수준의 첨단과학무기로서 무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군사기술 축적에는 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공산세력에 대항시킬 세력으로 일본을 선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본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미국의 방위기술을 전수받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방위산업을 급팽창할 수 있었다.¹¹⁸⁾ 1951-1984 사이에 일본은 외국 기술을 얻기 위해 40000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80년대에만 미국과 100건 이상의 군사적인 공동생산 프로젝트를 체결하였다. 일본기업들은 막대한 국가 예산

118) Andrew K. Hanami, "The Emerging Military-Industrial Relationship in Japan and the US Connection," pp. 594~96. pp. 600~08.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기반 확대를 위해 방위산업체가 되기를 희망한다.¹¹⁹⁾

일본기업들은 미국으로부터 이전된 군사기술을 활용하여 대부분 민간용도로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군수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미쯔비시社는 군사비 지출 감소에 직면하여 이전받은 군사기술과 자체 기술개발비를 항공우주로 전환하고 있다. 반면 민간용 기술개발도 군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 대부분이다. 현재 미쯔비시에서 항공우주 시스템에 쏟고 있는 사업 중 75% 정도는 군사분야와 연계된 것인 만큼 민간분야의 기술개발과 군사분야의 기술개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¹²⁰⁾

결국 일본의 순수한 군사 연구개발비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일본은 산업적 전환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일본의 민간연구개발비용의 상당부분을 방위목적에 위해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로 걸프전에서 사용된 첨단무기에 사용된 부품인 칼럼 비소 칩 기술 개발 비용은 일본의 군사예산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상업적인 연구개발 예산으로부터 나온다. 일본의 연구개발비의 19%가 방위프로젝트에 충당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군사용 연구개발비는 더 큰 액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119) Peter Katzenstein and Nobuo Okawara, "Japan's 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17, no. 4(Spring 1993), p. 114.

120) *Jane's Defence Weekly*, April 24, 1993, p. 32.

또한 일본은 1994년 8월 28일 100% 자체 기술로 개발한 대형로켓 「H-2」의 2호기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우주개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¹²¹⁾ 「H-2」 기술은 대륙간 탄도탄(ICBM)으로의 전용이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일본의 핵무장 잠재력과 함께 일본의 독자적 방위력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평화적인 목적과 이용을 내세우면서 군사력 현대화와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첨단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로써 일본은 군사적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방위기술 잠재력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라. 軍事力 增強 展望

이상과 같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추세를 고려할 때 일본의 군사적 잠재력은 상당한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이 독자적인 방위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요인들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일본의 독자적인 전쟁 수행능력 및 준비태세는 여전히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러시아 군대같은 경험 많고 장비를 잘 갖춘 군사력과 대항할 때는 일본의 전쟁 수행능력은 매우 취약하다.

121) 「朝日新聞」, 1994. 8. 29.

일본의 군사 담당자들은 일본이 주변 강대국의 군사력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면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 관계 유지 및 핵우산 보호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육군면에서 일본육군은 장교들의 충원도 대부분 농촌 지역에서 충원됨으로써 적절한 충원이 되지 못하며, 훈련도 공간의 제약과 계절의 제약 그리고 심지어 가용 탄약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일본은 로켓트 실험을 적당한 실험거리 확보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비행도 과중한 상업적 비행으로 인한 공군기용 항공공간 부족때문에 군사적인 속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의 F-15 비행사의 일본열도 주변에 대한 훈련비행 숙련도도 야간비행이나 악천후 비행을 상례화하고 있는 나토의 기준에서 보면 매우 미약한 편이다. 또한 대규모 부대운용을 위한 기술도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¹²²⁾

둘째, 일본은 방위 예산상의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일본이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포함하는 완전한 규모의 군사능력을 갖으려면 10~15년이 걸릴 것이고 GNP의 7~10%의 방위비를 지출하여야 할 것으로 평가

122) Andrew K. Hanami, "Japan and the Military Balance of Power in Northeast Asia,"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VIII, no. 2 (Summer/Fall 1994), pp. 376~77.

하고 있다.¹²³⁾ 그러나 일본은 현재 약 1%의 방위비만을 지출하고 있고 그와 같은 대규모의 방위비를 단기간내에 증액할 가능성은 적다.

더욱이 국내적으로 세계적인 군축추세에 역행하는 군사비 증액을 반대하는 여론이 팽배해 있어 급격한 군사비 증액은 어려운 실정이다. 1991년 말 구소련이 해체된 후 각종 군축 교섭이 진전되고 일본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미야자와 총리는 1991년 12월 「안전보장회의」에서 「제2차 新中期防衛力整備計劃」의 축소 조정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장성과 방위청사이에 절충을 거친후 1992년 12월 18일 「제2차 新中期防衛力整備計劃」의 경비총액을 1993년 이후 3년간(1993년 1995년) 5천8백억엔 정도 삭감하여 22조천 7백억엔(1990년도 가격)으로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일부내용을 축소 조정하였다.

또한 일본의 방위비에서 인건비 및 식량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도 장비현대화 및 실질적 군사력 증강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¹²⁴⁾

셋째, 미·일 동맹체제는 일본의 과도한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자국의 안보유지와 주변국들의 우

123) John Maurer, "The US and Japan: Collision?," *Strategic Review*, Vol. XXI, no. 2(Spring 1993), p. 45.

124)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일본방위비의 용도별 추이에 대해서는 防衛廳編, 「防衛白書」, 1994年版, p. 330.

려를 완화하기 위해 상당기간 미·일동맹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¹²⁵⁾ 최근 미·일동맹관계가 일본의 안보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질적 변화를 겪고 있으나,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미국의 주도적인 지역내 안보역할을 보완하는 수준까지만 허용하는 미·일동맹관계의 억제적 속성은 상당기간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현대화된 무기개발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의 기술이전과 미국의 부품 공급에 자신의 무기체제를 의존하고 있다. 만일 일본이 미·일동맹관계를 파기하게 되면 일시에 미국의 대일본 첨단 무기 기술 이전 및 부품공급은 중단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 으로서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유지를 통해 방위능력을 점차적으로 증진해 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군사력 증강은 미국의 감시와 통제하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¹²⁶⁾

또한 일본의 독자적 방위정책 추진을 위한 핵무장 가능성과 관련, 일본은 핵무장 잠재력을 증대함으로써 러시아 및 중국 등 주변국가들의 핵공격을 독자적으로 억지하려는 정책

125) Eugene Brown, "Japanese Security Policy in the Post-Cold War World: Threat Perceptions and Strategic Options,"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VIII, no. 2(Summer/Fall 1994), pp. 356~60.

126) David Arase, "Japan's Evolving Security Policy After the Cold-War,"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VIII, no. 2(Summer/Fall 1994), pp. 416~17.

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핵공격국가들이 인접국을 의식하지 않고 일본에 대해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은 자국이 세계에서 가장 적국의 핵공격 목표가 되기 쉽다고 인식하고 있다.¹²⁷⁾ 또한 일본은 전역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공격을 받을 경우 인구 집중 및 산업집중으로 인해 소규모의 핵공격으로도 산업전체가 폐허화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핵무장을 선불리 시도할 가능성보다는 당분간 미국의 핵우산하에서 안보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일본은 기본적으로 무역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경제국가이기 때문에 해상수송로 연안 국가들을 자극할 수 있는 급격한 군비증강을 강행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특히 일본은 중국연안을 지나고 있는 자국의 해상수송로를 독자적으로 방위하기 곤란하다는 군사전략상 취약점을 지니고 있어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관계가 불가피하다. 일본은 해상수송로 방위상의 취약점으로 인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은 현재로서는 군사력 증강에 있어서 독자적 작전능력 확보보다는 미국과의 합동작전 능력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신헌 무기 도입 및 개발에 있어서도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무기체계 수립보다는 미·일동맹 체

127) Hanami, "Japan and the Military Balance of Power in Northeast Asia," pp. 378~79.

제하에서 미국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무기이전과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제약점을 안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의 군사력 증강 정책의 방향은 장기적으로는 독자적 방위정책 추진을 위한 잠재력 확보 및 첨단 군사력 보유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전수방위와 미·일방위동맹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군사력 증강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당분간 독자적인 핵무장이나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해상수송로 독자 방위를 추진하기 보다는 미국의 핵우산하에서 미국과의 협조하에 점진적인 군사력 증강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1990년대에도 미·일동맹체제 속에서 양국간의 긴밀한 안보협의를 통해(미·일방위협력 지침에 따라) ① 주일미군 주둔 지원, ② 공동의 작전 지휘 조정 및 정보교환, ③ 장비, 기술면에서의 협력, ④ 양국군의 합동훈련 등을 추진함으로써 동북아지역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본은 군사력 증강을 계기로 미·일간 세계적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이라는 명분하에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 대한 안보역할을 점진적으로 증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第Ⅳ章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에 미칠 影響

중국과 일본은 동북아 지역국으로서 한반도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이다. 특히 냉전체제 와해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이 地域問題에 대한 發言權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는바,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먼저 동북아 4強間 軍事力學關係 변화 방향을 조망해 보고, 중·일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전망해 보고자 한다.

1. 1990年代 東北亞 軍事·安保秩序 展望

가. 東北亞 4強間 力學關係 變化

1990년대 동북아는 지역국들의 급속한 경제성장, 강대국간 영향력 확대 경쟁 그리고 중국과 한반도의 장래문제 등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지역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북아에 대한 美國의 軍事的 介入政策이 지속될 것이며, 미국은 同 지역에서 調整者로서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냉전이후시대 미국은 가능한한 대외문제에 대한 개입정책을 최소화 하고 대내 경제문제 해결에 최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¹²⁸⁾ 그러나 미국의 국익에 있어서 동북아지역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은 일본과 한국 등 동북아지역에 주둔해 있는 軍事力을 계속 殘留시킬 것이며, 역내 국가와 체결하고 있는 군사동맹조약의 효력도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¹²⁹⁾ 또한 미국은 동북아지역의 안정 유지와 중국과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편입을 촉진시키고자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서도 동북아 질서유지를 위한 조정자로서 미국의 개입정책이 지속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

냉전체제 붕괴이후 산적한 대내문제로 인하여 대외문제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동북아 지역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긴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고, 일본과 北方 4個 島嶼 반환문제로 갈등을 보이고 있으며, 太平洋艦隊의 안전한 활동 보장을 위해 블라디보스톡 등 극동 해군기지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안보 문제들은 미국 다음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로 하여금 동북아 지역문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對內 政治·經濟的

128) 이와 관련, 미국은 1992년 필리핀 수빅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를 폐쇄한 바 있으며, 주한 미군의 3단계 철군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29) 이와 같이 미국이 동북아지역을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이 맺고 있는 7개의 안보조약중 5개가 아시아국가를 상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混亂이 단기간내에 극복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북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中國과 日本은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역내 국가로서 동북아 지역에 대한 군사적 역할을 점차 증대시킬 것이다. 동북아 지역문제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안보적 개입정책이 지속될 것이나, 미국과 러시아의 현상황을 고려할 때 동북아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은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 감소에 따른 역내 勢力空白을 자신이 메움으로써 역내 발언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충동을 받게 될 것이다.

中國은 대내정치 안정, 급속한 경제성장과 군 현대화 및 주변국과의 선린관계 발전 등을 계기로 동북아 지역문제에 대한 군사적 발언권을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맞고 있다. 權力承繼의 과도기에 처했을 때 중국은 전통적으로 대외문제에 대해 강경자세를 보여 왔는 바,¹³⁰⁾ 앞으로 예상되는 鄧小平 사후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중국은 대만 통일문제 그리고 釣魚臺列島와 南沙群島 영유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것이다. 또한 구소련 붕괴이후 러시아로부터의 군사위협이 감소되고 있는 점도 東海와 南支那海 지역에 대한 중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130) 齊辛, “強硬路線君臨中國大陸,” 「九十年代」, 1994年 5月號, pp. 40~42; *Time*, October 18, 1993, p. 50.

것이다. 아울러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여부도 동북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軍事·安保 역할증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경제력에 걸맞는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日本은 우선 동북아에서 정치적 발언권을 신장하고, 점차 군사적 활동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1992년 유엔 캄보디아 평화유지군에 自衛隊를 파견한 바 있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일본 天皇의 중국 방문과 총리의 주변국 방문 등을 통해서 過去史 문제를 정리함으로써 일본의 정치대국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내에서는 平和憲法 개정을 통해 방위력을 증강함으로써 중국과 북한 등 가상적국에 대해 대처하고 해로 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일본이 세계에서 두번째의 군사예산을 지출하고 있고, 미국이 역내에서 일본의 영향력 증대를 용인하여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 축소로 인한 안보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는 바, 지역 안보문제에 대한 일본의 발언권이 급속도로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미국은 1990년대 동북아 군사·안보문제에 대해 과거보다는 다소 비중이 약화된 調整者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는 대내 정치·경제문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군사적 영향력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증강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

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감소에 따른 역내 세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¹³¹⁾ 그러나 1990년대 중국과 일본이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수준으로 군사력을 증강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고, 역내 군사·안보질서 조정자로서 미국의 역할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나. 東北亞 4強間 軍事·安保關係 展望

냉전이후시대 동북아지역에서 나타날 주변 4강의 군사 力學關係와 役割 變化는 4강간 군사·안보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예상되는 주변 4강간 군사·안보관계는 진영론적 특징을 보여 온 냉전시대와는 달리 각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복잡한 縱連橫의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일관계, 미·중관계, 그리고 중·일관계는 향후 동북아 안보질서에 三大 軸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를 중심으로 향후 전개될 동북아 4강간 군사·안보관계를 분석·전망하고자 한다.

美·日間 軍事同盟關係는 기본 골격면에서 효력이 지속될

131) 향후 동북아에서 일본이 미 일 동맹체제내에서 벗어나 군사력을 증강하고,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될 경우, 미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중 일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David B. H. Denoon, *Real Reciprocity: Balancing U.S. Economic and Security Policy in the Pacific Basin*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1993), pp. 84~85 참조.

것이나, 세계 전략환경의 변화와 양국의 대내외정책 변화로 말미암아 점차 결속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미·일동맹관계가 파기될 경우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심화되는 등 지역안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일본도 미·일 동맹체제내에 잔류하는 것이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일동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인은 미·일 동맹관계에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일동맹은 구소련에 대항할 목적에서 결성되었으며, 구소련이 이미 붕괴되고 러시아가 단기간내에 내부 혼란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존속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¹³²⁾ 이와 관련, 미국은 러시아와 平和的 同伴者關係를 설정하고 안보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일본도 1994년판 防衛白書에서 러시아의 안보위협을 과거 보다 덜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천명한 바 있다.

둘째, 미·일간 방대한 무역역조에 따른 첨예한 경제마찰과 미·일의 지역 안보정책 변화도 미·일 동맹관계 변화를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군사력 보다도 경제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냉전이후시대에 미·일간 방대한 무역역조는 미·일관계를 점차 경쟁적 관계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132) Ji Guoxing, "The Japanese-US Alliance: Uncertain Future," *SIIS Paper*, November 1993, pp. 1~2.

있다. 대내 경제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인 국가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대외문제에 대한 독자적 개입정책을 가능한 자제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문제 해결을 선호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국가와의 同盟關係와 多者安保對話라는 이중적 틀을 통해 역내 안보문제에 대처하고자 하고 있다.¹³³⁾ 미국의 이러한 지역안보정책은 장기적으로 동북아에서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1989년 天安門사건과 구소련 붕괴이후 미·중간 전략적 협력관계가 와해되었으나,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문제 등 지역 안보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안보협력 재개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지역문제에 대해 과거와 같은 독자적 개입정책을 전개하기가 곤란한 미국은 지역안정 유지를 위해 중국 등 역내국가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경제력 신장을 통해 동북아 지역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바, 미국은 지역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미국은 전면 核實驗禁止條約 체결과 핵확산금지조약 연장 등을 위해서 중국과 안보협력관계를 재개할

133) Winston Lord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상원 인준청문회의록, "A New Pacific Community: Ten Goals for American Policy," 1993. 3. 31, p. 4.

것으로 보인다.¹³⁴⁾ 아울러 미국은 鄧小平 사후의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군부와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미·중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중국도 미국에 못지 않게 美·中 안보협력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중국은 당면목표를 경제발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緊張關係를 해소해야만 하며,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미국과의 군사협력관계 모색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군사 무기·장비의 현대화와 군수산업의 민수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서도 미국과의 군사교류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¹³⁵⁾

그러나 미·중간 군사·안보 협력관계 진전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이에 따른 대외 팽창정책 추진 가능성,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무기 제공 등으로 인하여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반면 중국과 일본의 발언권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中·日間 安保關係 동향도 동북아 지역안정에 증대

134) Henry A. Kissinger, Cyrus R. Vance, "America's China Policy is Back on Cours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8, 1994.

135) 이와 관련, 미·중은 1993년 11월 프리먼 미 국방차관보의 방중이래 1994년 3월 위스너 미 국방차관의 訪中, 1994년 8월 徐惠滋 중국 부총참모장의 訪美 등 군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은 냉전이후 상대방을 잠재위협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 양국간 군사·안보관계에서는 협력적 측면과 경쟁적 측면이 병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일은 경제 발전을 지속하고 역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상대방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지도부의 교환 방문과 國防關係者間 安保對話를 개최(1994. 3)하는 등 안보부문에서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일은 역내에서 상대방의 정치·군사적 역할 확대정책을 견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양국간 안보관계 발전에는 限界가 노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장차 역내에서 일본이 중국의 최대 위협세력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인식,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일본 自衛隊의 전력 증강을 우려하고 있다.¹³⁶⁾ 1992년 8월 중국이 북한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과의 수교에 응한 이유중의 하나도 1992년 6월 해외파병법안 통과이후 역내에서 일본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¹³⁷⁾ 아울러 중국이 러시아로

136) 宗藍海, “中共議定國際頭號敵人,” 「爭鳴」, 1994年 1月號 (1994. 1), pp. 16~17; 「文匯報」(香港), 1994. 6. 11.

137)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강화를 일본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陸忠偉, 「新舊交替的東亞格局」(北京: 時事出版社, 1993), p. 4; 張雅君 “90年代中共的亞太戰略,” 「中國大陸研究」, 第35卷 第11期 (1992. 11), pp. 17~31 참고.

부터 도입한 수호이 27전투기를 安徽省 지역의 廣東軍區내 공군기지에 배치한 것도 일본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역내에서 정치·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중국이 장애가 되고 있으며, 중국의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력 현대화는 궁극적으로 일본의 海路安全에 위협을 야기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경제 원조 정책을 가능한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으며,¹³⁸⁾ 중국에 대해 國防白書 발간을 요구함으로써 중국 군사력의 透明度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일 양국의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감안해 볼 때, 장기적으로는 중·일간 安保摩擦이 야기될 소지를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介入政策이 축소되고 역내에서 안보대화가 활성화 되지 않을 경우 중·일간 안보관계는 경쟁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

2.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과 韓半島

가. 中·日의 對韓半島 軍事·安保政策 展望

(1) 中國의 對韓半島 軍事·安保政策

중국은 한반도가 자신의 戰略要衝인 東北3省과 접경하고

138) Masashi Nishihara, "Japan has Cause to Worry about Chinese Ambition,"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12, 1994.

있고 한반도에서 4강간 이익이 교차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와 중국과의 관계를 「脣齒關係」로 표현하고,¹³⁹⁾ 한반도에서 자신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반대하여 왔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중국은 북한 사회주의 정권의 안정 유지를 위해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고 있고, 한국과도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주변환경 유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등 안보 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저지하고 북한에 대한 최소한도의 군사지원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1994년 9월 1일 중국이 판문점 軍事停戰 委에서 중국 대표를 소환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도 궁극적으로 김일성사후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돕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 내부 혼란시 미국이 북한문제에 직접 개입할 경우,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향후 북한이 북한주민의 관심을 외부로 전환시키기 위해 한국에 軍事行動을 취할 경우, 중국이 北·中 軍事同盟 條約에 따라 북한의 침략행위를 적극 지원하지는 않을 것으

139) 周恩來, “抗美援朝, 保衛和平,” 「周恩來選集」, 下卷 (北京: 人民出版社, 1984), p. 51.

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안보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北韓 核問題와 駐韓 美軍問題 등 향후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분석·전망해 보고자 한다.

먼저 北韓 核問題와 관련,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나 대화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될 경우 일본, 한국, 대만 등 지역국의 핵무기 개발을 자극하는 등 동북아지역에 심대한 안보불안을 야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¹⁴⁰⁾ 또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지역국간 군비경쟁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중국의 경제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보유하는데 대해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핵문제가 미국의 주도하에 制裁와 壓力을 통해 해결되기 보다는 當事國間 對話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북

140)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중국에 대한 북한의 안보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중국 동북지역에 직접적인 안보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에 대한 제재가 잔존 사회주의 국가의 「和平演變」을 추구하는 미국에 의해 주도될 것이고,¹⁴¹⁾ 결국 대북 제재가 북한 社會主義體制 붕괴로 발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안보에도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발동시 중국이 외교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대북제재는 북한으로 하여금 突發行動을 채택하도록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 주민의 중국 영내로의 대량 유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 핵문제의 대화에 의한 해결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에 대한 중국의 發言權 행사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이 단기간내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도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반대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간 대화노력을 지지할 것이며, 북한의 핵의혹 해소와 미·북한 관계개선이라는 一括妥結 방식에 의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¹⁴²⁾

141) 蜀聲, “中共鬪美一王牌—北韓核武,” 「爭鳴」, 1994年 5月號 (1994. 5), pp. 76~78.

142)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1994년 9월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시 열친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천명된 바 있다. 「文匯報」(香港), 1994. 9. 4.

駐韓 美軍問題와 관련, 중국은 과거와는 달리 지역 안정유지 세력으로서 보다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主權回復과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⁴³⁾ 구소련으로부터 심각한 안보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시기 중국은 한국 등 역내주둔 미군이 구소련의 팽창정책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여 역내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묵인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중국은 구소련이 붕괴됨으로써 한반도에 미군이 계속 주둔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었고,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한반도에서 미군이 점진적으로 철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¹⁴⁴⁾ 또한 중국은 남북한 간 국력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서 한국에 의한 북한의 吸收統一 가능성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¹⁴⁵⁾ 북한이 한국에 의

143) 그러나 중국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는 등 지역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申相振,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p. 90; 關文亮, “圍堵, 牽制, 離間, 抹黑,” 「文匯報」(香港), 1993. 9. 17; David Shambaug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on a Collision Cours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18, 1994.

144) 取榮, “從朝鮮民族的未來觀察朝鮮半島的統一,” 민주당 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4. 5, p. 4.

145) 중국은 한국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 가능성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와 구소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하고, 북한이 한국에 의해 흡수통일될 경우 중국 사회주의 체제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朴斗福, “韓半島統一에 대한 中國의 이해와 政策展望,” 「主要國際問題分析」, 1993. 7. 21, p. 13.

해서 흡수통일될 경우 주한 미군은 중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세력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판문점 軍事停戰委 대표단 소환 결정 과정에서도 주한 미군 철수를 희망하는 중국의 전략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 日本의 對韓半島 軍事·安保政策 展望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아시아 대륙으로의 진출경로 혹은 아시아대륙으로부터의 외부세력 침투를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서 중요시하여 왔다. 이와 관련, 일본은 1)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고, 2) 자국에 적대적인 정부가 한반도에 수립되는 것을 반대하며, 3) 한반도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대한반도 안보정책은 상당기간 한·미와의 전략적 유대관계 및 미국의 동북아정책의 틀 내에서 전개될 것이고, 한국에 갖고 있는 일본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미일동맹관계 속에서 韓國偏向의 대한반도 안보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구체적인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과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핵문제와 관련, 일본은 핵 피폭 경험 때문에 비핵3원칙을 표명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성실히 받고 있고, 북한의 핵개발에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자국의 안보, 동북아 안정 및 對美關係를 고려하여

제3세계에서 핵무기개발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한국과 함께 북한도 핵시설에 대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고 남북상호핵사찰을 수용함으로써 한반도가 非核地帶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 평화를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자간 접근이 시도될 경우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핵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둘째, 군축문제와 관련, 일본은 한반도통일이 현재의 군사력을 유지한 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합의와 주변국간의 다자간 안보협의를 통해 남북한의 핵 및 생화학병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고 총병력을 감축하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남북한과 미·일·중 러간의 「2+4」회담 등 多者間 安保協議體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문제가 관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은 지역내 다자간 안보협의체 설립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남북한간에 논의될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다자간 접근을 통해 한반도의 군비통제 등 안보문제에서도 발언권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와 관련,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주도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고 인식하면

서도 동북아지역에서 정치·안보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이에 대한 국제적 보장자로서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은 남북협상 진척상황과 남북한 및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 보장장치로서 「2+4」 구도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구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국의 발언권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일본은 최근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의 참가, 안보리상임이사국지위 획득을 위한 외교노력 등 유엔 증시 정책을 통해 국제적 역할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바, 장차 유엔의 기능이 강화되어 남북한간의 평화에 대한 국제적 보장활동이 실현된다면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넷째, 일본은 한반도통일 과정에서 미국이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은 통일 移行期에 북한체제의 붕괴로 야기될 지도 모르는 한반도의 혼란과 전쟁 위험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을 중요한 존재로 보고 있으며, 민주적 통일한국이 탄생된 이후에도 동북아 안정을 위해 미군이 당분간 주둔하여 지역안정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미군의 한국주둔은 아시아 대륙으로부터의 가상위협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오히려 일본의 역할증대에 따른 주변국들의 우려를 완화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1994년 7월 9일 미·일정상회담에서도 무라야마 신임 총리는 기존 외교정책 지속 및 미·일 안

보동맹관계 견지 그리고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3국 간 협조체제 유지를 약속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안정적 역할 수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¹⁴⁶⁾

나. 中·日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 安保에 미칠 影響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중·일로 하여금 대외 軍事行動 선택을 자극하는 등 대외 強硬政策을 추구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중·일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역내 안보불안은 남북한간 군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역내 미군의 지속 주둔 명분을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중·일의 군사력 증강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에 대한 중·일의 영향력 확대 경쟁을 유발시키고 한반도 통일을 지연시키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 南北韓間 軍備競爭 刺戟

중·일의 군사력 증강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安保威脅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당분간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중·일의 군사력 증강은 역내 국가들에게 일차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

146) 「朝日新聞」, 1994. 7. 9.

할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중·일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과거 19세기말 淸日戰爭시 중·일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인 바 있으며, 제2차 中日戰爭시에도 일본은 한반도를 경유해 중국을 침략한 바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볼 때도 그러하다.

중국과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하여 동북아지역에서 軍事的均衡狀態가 파괴될 경우, 한반도는 북·서쪽에서 중국의 현대화된 군사력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고, 남·동쪽에서 일본의 강력한 해군에 의해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중·일의 군사력 증강은 한반도를 둘러싼 전해역에서 대륙붕 문제와 어획권 문제 등으로 한·중·일간 분쟁을 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많으며, 해상 교통로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한국의 경제·안보 이익에 심대한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軍事支援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도 중국은 북한과 軍事同盟條約을 체결하고 있는 바, 중국은 북한에 대한 중급 군사 무기 제공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외부의 공격을 받을 경우 중국 瀋陽軍區 지역에 배치된 신속대응군을 북한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¹⁴⁷⁾

147)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선제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Beijing Cites Pact With Pyongyang,"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9~10, 1994.

따라서 중·일의 군사력 증강은 한반도의 남북한에게 독자적 안보역량 강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현재도 남북한은 전체예산의 상당부분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어서 경제발전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바, 중·일의 군사력 증강은 남북한간 군비경쟁을 심화시켜 北韓經濟의 회생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韓國經濟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중·일의 군사력 증강은 북한의 핵탄두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정책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미관계가 마찰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최신 무기 제공 등 軍事支援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 진전은 남북한간 軍備統制 등 신뢰구축 노력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2) 駐韓美軍의 持續 駐屯

중국과 일본이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데 있다. 중국은 해군력과 공군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南沙群島 등의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고 대만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군사력 증강을 통해 역내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은 조만간 역내 영향력 확대과정에서 마찰을 빚게 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중국과 일본이 군사적 마찰을 보이게 될 지역으로서는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이 유력하다. 또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臺灣問題를 무력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중국의 욕망을 증대시킬 것이며, 미국이 대만에서 가지고 있는 이익을 감안할 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에 미국의 군사력을 존속시킬 필요성을 갖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당분간 美·日 同盟體制내에 국한되어 추진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바, 미국은 일본의 독자적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고 역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을 비롯한 역내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다. 중·일의 군사력 증강은 결국 동아시아 지역불안을 야기하는 등 미국의 기존 이익을 침해하게 될 것이므로 미국은 한국 등 역내에 주둔하고 있는 美軍이 계속 殘留되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3) 東北亞 多者安保對話 促進

중·일의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 및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파괴하는 등 지역안정 유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역내국가들은 기존의 쌍무적 安保同盟만으로는 중·일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고 중·일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따

라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동북아 多者安保對話가 역내국가와의 쌍무적 안보 동맹관계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 다자안보대화가 활성화 되는 것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일본도 한반도의 안정유지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 견제 뿐만 아니라 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동북아 다자안보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중국은 동북아 다자안보대화가 美國 主導下에 중국 견제 목적을 띠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동북아에서 양자간 信賴構築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¹⁴⁸⁾ 그러나 중국은 4강의 이익이 첨예하게 교차되고 있는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중국의 안보에 최대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¹⁴⁹⁾

148) 何方, “亞洲的堀起,” 「世界知識」, 1994年 第1期 (1994. 1. 1), pp. 4~5; Guo Zhenyuan, “Asian-Pacific Security System,” *Window* (October 1, 1993), p. 27.

149) 중국은 한반도문제의 특성상 다자안보대화에 의해서 보다는 관련 당사국간 대화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왔다. 최근 중국이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李鵬, “政府工作報告,” 「文匯報」(香港), 1994. 3. 24; 燕楊, 楚刀, “亞太地區安全問題及各方基本態度,” 「現代國際關係研究」, 1994年 第7期, (1994. 7), pp. 2~7; Guo Zhenyuan, “Prospects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Beijing Review*, July 11-17, 1994, pp. 20~22 등 참조.

이와 같은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에 대한 주변국의 적극적인 입장을 고려할 때,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야기할 남북한간 軍備增強 가능성 등 지역 安保不安 해소 차원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4) 韓半島 統一 遲延

중·일의 군사력 증강은 한반도에 대한 중·일의 영향력 확대 경쟁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중·일이 북한에서는 중국의 우월권을 한국에서는 일본의 우월권을 상호 인정하는 형태로 韓半島의 分斷을 固着化 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한반도에 대한 중·일의 이러한 勢力範圍 확정은 중·일의 군사력 증대로 인한 양국간 군사적 마찰을 회피하기 위한 타협안으로서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 보다는 現狀維持를 바라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가 한국에 의해서 통일될 경우 중국 東北3省에 거주하고 있는 朝鮮族의 한국인화가 가속화 되고 중국내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¹⁵⁰⁾ 또한 중국은 한국에 의한 북한의 吸收統一이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에도 위협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한반도의 무력통일은 중·미간 무력대결 가능성을 초

150) 柴田 孝, “冷戰後の中國における少數民族問題,” 「中國ヒミネス徹底研究」(中央公論臨時増刊), 1994年 7月號 (1994. 7), p. 468.

래하고 중국의 경제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한반도 통일을 반대할 것이다. 일본도 역시 통일된 한국이 일본에 적대적인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할 것을 우려하여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일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중·일의 군사력 증강과 영향력 확대 경쟁은 韓半島의 統一을 遲延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第 V 章 韓國의 考慮事項

중국과 일본은 냉전이후시대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군사력 증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남북한간 軍備競爭을 자극하고 韓半島의 統一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 등 한반도의 안보 및 통일환경에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平和와 安定이 유지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주도의 평화통일 실현에 유리한 周邊環境을 조성하기 위해 적절한 對備策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처, 한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안보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방위를 위한 최소한도의 軍事力을 계속 維持할 필요가 있다. 과거 중·일이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 확보 경쟁 과정에서 전쟁을 경험한 바 있고, 현재도 한반도에서 中·日의 利害關係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중·일은 한반도를 자국의 影響圈內에 편입시키기 위해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많다. 또한 냉전이후시대의 국제관계는 냉전시대 보다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바, 한국은 과거처럼 미국 등 우방에 대해 국가안보를 보장해 주도록 요구하기 어려운 상

황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새로운 안보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점차 獨自的 安保能力을 보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는 북한만을 가상적으로 설정해 왔던 과거의 安保戰略을 중·일의 군사력 증강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북한만을 假想敵으로 규정하였던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육군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으나, 중·일의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공군력 현대화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경제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군사력 증강은 장기적으로 한민족의 번영에 결코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이 중·일의 군사력에 대처할 수 있는 독자적 군사능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중·일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완화하고, 중·일의 군사력 증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地域紛爭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 중, 일 등 주변국들을 참여시키는 동북아 多者安保協力體 창설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태지역에서는 「아세안지역포럼」(ARF)이 결성되어 금년 7월 제1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으나, 역내국가들의 상호 불신으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형태의 包

括的인 다자안보협력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구상에 대한 중국의 의구심이 동아시아지역에서 다자안보협력체를 창설하는데 최대 장애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¹⁵¹⁾ 한국은 역내에서 패권을 추구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정부는 역내 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동북아 多者安保對話 構想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영토문제와 인권 문제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제외시키고,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역내국가들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主要 議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역내국가들의 군사력에 대한 투명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國防白書 상호 교환, 공동 군사훈련 실시 및 國防 當局 者間 정기 會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정부는 중국의 핵위협과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 한반도 非核地帶化 구상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은 최대 핵억지전략을 채택하여 핵탄두의 소형화와 핵탄두 운반 미사일의 성능 개량에 매진하고 있

151) 중국은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신태평양공동체」 건설 구상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경계한 바 있고, 일본의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구상에 대해서도 역내에서 일본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여 왔다. 郭長林, “克林頓의亞太戰略,” 「瞭望」, 1993年第32期 (1993. 8. 9), pp. 41~42.

으며,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서도 핵탄두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군사 대국화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도 핵무기를 개발·보유할 가능성이 점차 제고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움직임은 일본의 핵무기 개발을 자극하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중국의 핵무기가 한국에게 미칠 수 있는 안보위협을 감소시키고,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도 한반도 비핵지대화 또는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정부는 美國과의 安保協力을 중심축으로 하여 中·日과도 安保協力 관계를 점차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고되고 있는 바, 한국정부는 역내 안정유지 세력으로 서 역내 美軍이 당분간 계속 주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미국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舊韓末 1884년 東學 農民軍 蜂起時 청나라에 대한 李朝의 원군 요청이 결국 한반도에서 淸日戰爭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한국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보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반도가 주요 무대가 될 수 있고, 그 경우 한국은 중·일 양국중 어느 일방과의 관계를 우선시 해야 할 것인지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외

교적 난국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도 지역안정 유지 세력으로서 미국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美·日 同盟體制가 존속되고 일본내에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한국정부는 역내에 미군이 당분간 존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냉전이후시대 동아시아 군사·안보질서가 多邊化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일과도 군사협력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과정 또는 통일이후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강력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바, 한국은 미국 중심의 안보정책 기반하에 中, 日, 러 등 지역국가들과도 군사·안보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현재 북한을 자신의 체제안보를 위한 緩衝地帶로 인식하여 북한과 군사동맹관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에게 중급 수준의 무기를 계속 제공하는 등 북한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많다. 이와 관련, 한국은 중국과의 쌍무적 安保對話를 정례화 하고 중·북한간 군사동맹조약중 한국을 겨냥한 부분의 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한·중 상호간 불가침 등 안보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基本關係條約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은 中國과의 經濟的 상호 依存度를 심화시킴으로써 중국의 안보위협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은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인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鄧小平 사후의 권력승계문제와 관련하여 중국내에서 군사력 증강을 역설하는 보수세력의 발언권이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鄧小平 사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중국 지도부의 보수화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 군부와외 교류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한·중간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중간 경제적 상호 의존도 심화는 결국 양국간 정치·안보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參 考 文 獻

1. 단행본

- 申相振. 「中國의 改革 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李惟眞. 「日本의 核政策」.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黃炳茂. 「新中國軍事論」. 서울: 法文社, 1992.
- 鄧小平. 「鄧小平論國防和軍隊建設」.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2.
- 防衛廳編. 「防衛白書」. 平成6年版.
- 上海國際問題研究所編. 「國際形勢年鑒, 1993」. 上海: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3
- 成都軍區軍事學術研究指導委員會 編. 「新時期軍隊建設思想研究」.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8.
- 鄭文翰 編. 「毛澤東思想研究大系」. 軍事券.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3.
- 周恩來. 「周恩來選集」. 下卷. 北京: 人民出版社, 1984.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十三大以來重要文獻選編」. 下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
- Chen, King C. *China's War With Vietnam, 1979: Issues, Decisions, and Implications*. Stanford,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1987.

Denoon, David B. H. *Real Reciprocity: Balancing U.S. Economic and Security Policy in the Pacific Basin*.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1993.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ed. *China's Economic Dilemmas in the 1990s: The Problems of Reforms, Modernization, and Interdependence*. Armonk: M.E. Sharpe, 1992.

2. 논문

朴斗福. “韓半島統一에 대한 中國의 이해와 政策展望.” 「主要國際問題分析」. 1993. 7. 21.

_____. “최근 中國 軍事費 增加의 國內政治的 意味.” 「主要國際問題分析」. 1994. 4. 13.

申相振.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정세 보고서, 93-07. 1993. 10.

“中國人民解放軍現役軍官服務條例.” 「人民日報」. 1994. 5. 15.

俱孟軍. “俄致力恢復大國地位.” 「文匯報」(香港). 1994. 4. 5.

羅冰, 黎自京. “中共軍方插手對美政策.” 「爭鳴」. 1994年 5月號. 1994. 5.

凌宇. “中國新武器的發展趨勢.” 「廣角鏡」. 1993年 12月號.

- 東方戟. “中共軍事重心南移.” 「中國大陸」. 第27卷 第5期. 1994. 5.
- 來金烈 等. “堅持軍民結合, 發展兵器工業.” 「人民日報」. 1991. 10. 23.
- 萬樹玉. “國際形勢座談會記要.” 「現代國際關係」. 1993年 第1期. 1993. 1.
- 潘振強. “當前世界軍事形勢.” 「人民日報」. 1993. 12. 24.
- 宋以敏. “一年來地區衝突形勢特點.” 「人民日報」. 1993. 12. 23.
- 譚取榮. “國際形勢座談會記要.” 「現代國際關係」. 1993年 第1期. 1993. 1.
- 延遠. “冷戰後國際形勢特點.” 「國際問題研究」. 1993年 第3期. 1993. 7.
- 王殊. “認識新的世界.” 「國際展望」. 1993年 第4期. 1993. 2. 23.
- 王和興. “90年代世界經濟的大趨勢.” 「國際問題研究」. 1993年 第2期. 1993. 4.
- _____. “世界經濟區域集團化的新發展及問題.” 「國際問題研究」. 1993年 第4期. 1993. 10.
- 俞劍鴻. “地域主義與中共七大軍區.” 「中國大陸研究」. 第35卷 第4期. 1992. 4.
- 李鵬. “政府工作報告.” 「文匯報」(香港). 1994. 3. 24.
- 李長久. “世界主戰場轉向經濟領域.” 「文匯報」(香港). 1993.

1. 1.

_____. “亞太在世界經濟中的地位 and 影響.” 「瞭望」. 1993年
第48期. 1993. 11. 29.

丁樹範. “論四十餘年來共軍的發展.” 「中國大陸研究」. 第35卷
第12期. 1992.12.

_____. “中共精簡軍隊的內容 性質與未來.” 「中國大陸研究」.
第35卷 第9期. 1992. 9.

_____. “波斯灣戰爭對中共解放軍的影響.” 「中國大陸研究」.
第34卷 第12期. 1991. 12.

鄭德林. “中共將改善海軍空軍裝備.” 「鏡報」. 1994年 2月號.

宗藍海. “中共議定國際頭號敵人.” 「爭鳴」. 1994年 1月號.
1994. 1.

朱幸福. “俄羅斯不再順從美國.” 「文匯報」(香港). 1994. 4. 5.

陳啓懋. “轉型期的動蕩根源和國際形勢特徵.” 「現代國際關係」.
1994年 第4期. 1994. 4.

陳哨賓. “劉華清說中國反霸但不稱霸.” 「鏡報」. 1994年 5月號.

蜀聲. “中共鬪美一王牌——北韓核武.” 「爭鳴」. 1994年 5月號.

黃庭偉, 楊明杰. “蘇聯巨變後的國際形勢.” 「現代國際關係」.
1992年 第1期. 1992. 1.

郭長林. “克林頓的亞太戰略.” 「瞭望」. 1993年 第32期. 1993.

8. 9.

關文亮. “圍堵, 牽制, 離間, 抹黑.” 「文匯報」(香港). 1993.

9. 17.

- 軍事情報研究會. “日本にふさわしい陸戦兵器.” 「軍事研究」.
第二八卷, 第二號. 1993年 2月號.
- 鈴木篤之. “日本原子力政策と ルトニウム問題.” 「國際問題」.
no. 397. 1993年 4月.
- 柴田 孝. “冷戦後の中國における少数民族問題.” 「中國ヒミホ
ス徹底研究」(中央公論臨時増刊). 1994年 7月號. 1994. 7.
- 謹取榮. “從朝鮮民族的未來觀察朝鮮半島的統一.” 민주당 주최
학술회 의 발표논문, 1994. 5.
- 燕揚, 楚刀. “亞太地區安全問題及各方基本態度.” 「現代國際關
係研究」. 1994年 第7期. 1994.7.
- 張雅君. “90年代中共的亞太戰略.” 「中國大陸研究」. 第35卷
第11期. 1992. 11.
- 長沼惠二. “航空自衛隊の最新戦力: 21世紀の主力裝備.” 「軍
事研究」. 第二十八卷, 第四號. 1993年 4月號.
- 前田壽夫. “「軍事大國 日本」九三年度防衛豫算.” 「軍縮問題資
料」. No. 151. 1993. 6.
- _____ . “「大綱見直し」問題おめぐつて.” 「軍縮問題資料」.
No. 163. 1994. 6.
- 齊辛. “強硬路線君臨中國大陸.” 「九十年代」. 1994年 5月號.
- 宗藍海. “中共議定國際頭號敵人.” 「爭鳴」. 1994年 1月號.
1994. 1.
- 中山一富. “海上防衛力に大穴があく.” 「軍事研究」. 第二十八
卷, 第三號. 1993年 3月號.

- 青木謙知. “E-767 AWACS.” 「軍事研究」. 第二十八卷 第四號. 1993年 4月號.
- 蜀聲. “中共鬪美一王牌——北韓核武.” 「爭鳴」. 1994年 5月號. 1994. 5.
- 豊田利幸. “戰域ミサイル防衛(TMD)とは何か.” 「軍縮問題資料」. No. 159. 1994年 2月號.
- 何方. “亞洲的掘起.” 「世界知識」. 1994年 第1期. 1994. 1. 1.
- Arase, David. “Japan’s Evolving Security Policy After the Cold-War.”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VIII, no. 2. Summer/Fall 1994.
- Brown, Eugene. “Japanese Security Policy in the Post-Cold War World: Threat Perceptions and Strategic Options.”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VIII, no. 2. Summer/Fall 1994.
- “China’s Nuclear Force Called Minimal.”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25, 1994.
- Cheung, Tai Ming. “serve the people and arms reduction.” *Far East Economic Review*. October 13, 1993.
- _____. “China’s Buying Spree.” *Far East Economic Review*. July 8, 1993.
- Ding, Xinghao. “An Unstable Relationship.” *SIIS Paper*. December, 1993.
- Guo, Zhenyuan. “Asian-Pacific Security System.” *Window*.

October 1, 1993.

_____. "Prospects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Beijing Review*. July 11-17, 1994.

Hormats, Robert. "Roots of American Power." *Foreign Affairs*. Vol. 70, no. 3. Summer 1991.

Hanami, Andrew K. "The Emerging Military-Industrial Relationship in Japan and the US Connection." *Asian Survey*. Vol. XXXIII, no. 6. June 1993.

_____. "Japan and the Military Balance of Power in Northeast Asia."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VIII, no. 2. Summer/Fall 1994.

Hisahiro, Kanayama. "The Future Impact of Energy Problems in China." *IIPS Policy Paper*, 124E. June 1994.

Hyer, Eric. "China's Arms Merchants: profits in command." *China Quarterly*. no. 132. December 1992.

Ji, Guoxing. "The Japanese-US Alliance: Uncertain Future." *SIIS Paper*. November 1993.

Karniol, Robert. "China ahead in Asian States' post-Cold War battle." *Jane's Defence Weekly*. September 25, 1993.

Kissinger, Henry A, Cyrus R. Vance. "America's China Policy is Back on Cours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8, 1994.

Liu, Zhongcheng, Guo Chuanling. "World Trends 1993."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 No. 1. January 1993.

Li, Peng. "China's Basic Policy Towards Central Asia." *Beijing Review*. May 2-8, 1994.

Lu, Zhengrong. "Why the United States Aids Russia." *Beijing Review*. April 19-25, 1993.

Masashi, Nishihara. "Japan Has Cause to Worry About Chinese Ambition."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12, 1994.

Maurer, John. "The US and Japan: Collision?" *Strategic Review*. Vol. XXI, no. 2. Spring 1993.

Nishihara, Masashi. "Japan has Cause to Worry about Chinese Ambition."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12, 1994.

Richardson, Michel. "Energy Needs of China Fuel Weapons Scenario."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3. 5. 5.

Segal, Gerald. "The Middle Kingdom?: China's Changing Shape." *Foreign Affairs*. vol. 73. no. 3. May/June 1994.

_____. "The Coming Confront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World Policy Journal*. vol. X, no. 2. Summer

1993.

Shambaugh, David.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on a Collision Cours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18, 1994.

Sung, Kuo-cheng. "International Situation in the 1990s: The View from Peking." *Issues & Studies*. Vol. 30, No. 2. February, 1994.

Tyler, Patrick E. "Nuclear Club Distressed by China's Test of H-Bomb."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11-12, 1994.

"The Fourteenth Party Congress In Session." *China News Analysis*. no. 1471. November 1, 1992.

Xin, Dun. "China's Economic Strength is Overestimated." *Beijing Review*. June 14-20, 1993.

Xu, Xin. "Changing Chinese Security Perceptions." *North Pacific Cooperative Security Dialogue Working Paper*. no. 27. April 1993.

Yan, Xuotong. "China's Security after the Cold War."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 No. 5. May 1993.

Youn, Jung-Suk. "US and Japanese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1990s."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VI, no. 2. Summer 1992.

3. 기 타

「人民日報」.

「解放軍報」.

「文匯報」(香港).

「讀賣新聞」.

「世界週報」.

「朝日新聞」.

「日本經濟新聞」.

「產經新聞」.

China Daily.

Far East Economic Review.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ane's Defence Weekley.

Military Balance, 1992-1993

South China Morning Post.

The New York Times.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Ⅲ) —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 94-01 北韓 官僚腐敗 研究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6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일의 權力基盤 研究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統一情勢分析〉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
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을 契機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展開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 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4-08 북한의 대남동향 분석(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日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1994.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
(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미·일 WORKSHOP :

KOREAN PENINSULA DEVELOPMENTS AND U.S.-JAPAN-
SOUTH KOREA RELATIONS (vol. 1)

KOREAN PENINSULA ISSUES AND U.S.-JAPAN-SOUTH
KOREA RELATIONS (vol. 2)

KOREAN PENINSULA TRENDS AND U.S.-JAPAN-SOUTH
KOREA RELATIONS (vol. 3)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
안보에 미칠 影響

研究報告書 94-11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9252,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4年 10月 日

發行日 1994年 10月 日
